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CONTENTS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소외받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농촌



- 부산 기장 / 부산기장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8
- 인천 강화 /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18



일하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농촌



- 충북 영동 /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
- 경남 창원 / 빗돌배기마을 36



청년이 활기를 불어넣는 농촌



- 경북 경주 / 마카모디 44
- 경북 문경 / 달빛탐사대 54
- 경북 칠곡 / 아트랜스파머 60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IV

주인이 한마음으로 꽃피우는 농촌



- 경기 양평 / 달강세월협동조합 70
- 강원 양구 / 사단법인 디엠지편치불숲길 78
- 경남 합천 / 마을지기목공소 88
- 제주 / 세화마을협동조합 & 질그랭이거점센터 94
- 제주 /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곳 102

V

다시 찾아간 농촌



- 경기 양평 /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사업 114
- 충남 금산 / 금산문화의집 124
- 전남 강진 / 강진 푸소(FU-SO) 136
- 제주 /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회 148

발간사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2·3·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2005~2024)은 대표적인 범부처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 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하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다각화 등 4대 전략 부문을 축으로 한 다양한 사업에 2024년까지 5년간 총 51.1조 원 규모의 투용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사회도 주민들의 다양한 움직임에 힘입어 나름의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통해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꾸려가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지역의 언어를 매개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청년들도 있는 한편,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생활 서비스 제공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은 농어촌 곳곳에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16가지의 다양한 사례를 엮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전에 우리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연구원에서 이미 발굴하였던 사례를 다시 방문해보고,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온 이야기를 이어 들어보는 4개 사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 이끌어어나가는 활동을 함께 엮어, 농어촌 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두루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하나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사업을 벌이는 한편, 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책 담당자나 주민 여러분이 더 나은 지역으로 꾸려가는데 저희가 발굴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의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I

CHAPTER

소외받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농촌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 부산 기장

부산기장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 인천 강화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의미 있는 도전,

부산기장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1길 16-26
- 단체명 부산기장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 주요내용 대안적인 돌봄과 교육의 관점에서 학부모들이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부터 초등 방과후학교 돌봄 서비스를 제공
- 키워드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보육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나,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中

어느 드라마에서 자칭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으로 등장하는 한 청년은 이런 구호를 외쳤다. 자녀들을 장차 사회에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에 떠밀리듯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앞에 ‘짠’하고 나타난 청년은 아이들을 산에 데려가서는 신나게 ‘논다.’ 드라마 특유의 익살스러운 과장이 섞여 있지 만 오늘날 아이들에 대한 상반되는 교육관이 부딪히는 장면이다. 아이들을 기르

는 관점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2021년 기준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84.3%, 읍·면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80.7%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¹

기장군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장군 내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약 1.5개로 서울특별시의 평균과 맞먹는다. 사설학원의 숫자도 5년 사이 193개에서 261개로 눈에 띄게 늘었다.² 부산 외곽의 군 지역으로 여겨졌던 기장군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유입이 늘어난 결과 중 하나다. 기장군 내에서도 조그마한 면 지역이었던 정관면은 2015년 정관읍으로 승격되었다. 이제 정관읍은 아직 남아있는 논밭과 산자락 풍경 한가운데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구획된 도로와 아파트단지가 마치 작은 섬처럼 자리 잡고 있는 풍경을 보이고 있다.

기장군의 많은 아이들도 여느 중소도시들의 아이들처럼 부모들이 일터에 있는 동안 어린이집으로,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환경에서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었다. 어느덧 10여 년 전의 일이다. 특히 당시에 아동 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이슈가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지역 기반의 온라인 맘카페에서 비슷한 고민을 나누던 부모들은 함께 모여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기로 의기 투합했다. 2014년에 설립한 부산기장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하 기장공동육아협동조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영유아 돌봄을 넘어 초등 방과후학교까지

기장공동육아협동조합의 탄생을 야기한 것은 지역사회에 아이들을 맡길만한 보육 기관이나 교육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자녀들을 위해 제도권의 획일화된 교육 방식을 탈피한 대안적인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마음이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었

1. 통계청. 2022.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 통계청. 2022. 「교육기본통계」 및 「주민등록인구현황」



다. 더욱이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쾌적한 주변 환경은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뛰놀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협동조합의 출발점은 어린이집 설립으로부터 시작했다. 사실 자녀의 돌봄 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출범이 필요했던 셈이다. 그렇게 2014년 2월, 15가구가 참여하여 15명의 자녀들을 돌보는 짱짱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였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개개인의 운영진이 되었다. 비폭력, 전인교육, 건강한 먹거리 등 공통의 교육관을 공유하며 모였기 때문에 출자금의 부담도 기꺼이 나눌 수 있었다. 출자금이 비교적 높았던 이유는 정관면의 외곽지역, 현재의 터에 어린이집 건물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방과후학교 건물 전경

어린이집 운영이 자리를 잡고, 조합원들도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육아에서 보람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자녀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하나둘 어린이집을 떠나야 할 시기가 닥친 것이다. 아이가 자라는 발달과정에 따라 대안적인 돌봄과 교육도 발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 협동조합에서는 초등학교를 위한 방과후학교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에 '푸른들판방과후학교'를 세웠다. 처음에는 아파트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을 마당이 있는 지금의 터전으로 옮기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

여 2층 건물을 지었다. 1층은 기존의 어린이집, 2층은 초등 방과후학교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아이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로 진학한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동시에,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1층에서 놀던 아동이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구상한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14명, 초등방과후학교에는 26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선생님은 정교사 6명, 보조교사 1명, 영양사 1명 등 총 5명이다.

한편 조합원들이 활동 초창기에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협동조합 설립의 발돋움터가 되었던 맘카페는 현재까지 협동조합 활동을 알리는 활발한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내 아이를 타인에게 맡긴다는 생각이 드는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게, 공동육아를 통해 직접 아이들 돌봄 운영에 역할 분담을 하면서 조합원들 간 소통도 자연스럽게 늘고,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 아이들을 잠시 돌봐달라고 맡기기도 한다. 이렇게 조합원들끼리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돕고 고민하며 9년째 협동조합을 운영해오다 보니 이제는 일종의 전우애까지 생겼다고 한다.



조합원 모임



자연 속에 한 데 어울려 '나'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기장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기본 틀은 '생태'와 '관계'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수공예와 더불어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줍깅, 라이딩, 목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에 맞추어 구성되어있다.

생태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쾌적한 농촌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여건 덕분이다. 어린이집 자체가 시가지와 떨어져 외곽의 논밭 한가운데에 있어, 아이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염려 없이 너른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오전 나들이로 오전 시간을 보낸다. 어린이집 인근의 좌광천, 구목정 공원, 소두방 공원 등 정관을 내 아이들이 뛰어놀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 봄에는 개울에서 개구리가 탄생하는 과정을 관찰하기도 하고 가을에는 터전 주변 논밭으로 벼가 익는 것을 지켜보기도 한다. 어린이집 터 마당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어 엄마 아빠와 함께 조그맣게 농사를 지어보기도 하지만, 사시사철 꽃이 자라고, 나뭇잎의 색이 알록달록하게 물들고 시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진정한 생태 교육을 완성한다.



어린이집 터전에서 진흙 놀이하는 아이들(좌)과 추수 후 논에서 노는 아이들(우)

나들이를 나갔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뒤, 오후 시간은 음악과 미술 등 예술 놀이 시간에 참여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프로그램이 '교육'이라기보다 '놀이'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각 프로그램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아이들이 따라가도록 되어있다면, 이곳에서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큰 틀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편이다. 따라서 아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대로 연주할 수 있다. 이때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개입은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인지 어린이집의 오후는 늘 왁자지껄하다. 각자 하고 싶은 음악을 연주하고 놀면서도 선생님의 지도에는 귀를 쫓긋 세우고 합창을 하기도 한다. 언뜻 보면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놀 때 더 즐겁고,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는다.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는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적게는 3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어린이집과 방과후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은 모두 서로에게 친구다. 비슷한 연령끼리, 같은 학년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의 학부모들이 어렸을 적 동네에서 서로 거리낌 없이 지냈던 것처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형이나 오빠, 누나 또는 언니로써 역할을 체화한다. 그러면서도 나이의 위아래 관계없이 모르는 것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인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초등 방과후학교는 박물관 견학이나 마을 탐방, 물놀이 등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 방향은 어린이집과 동일하다. 아이들 개개인의 고유적인 특성과 발달과정에 따라 스스로 익히고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획일화되고 통일된 프로그램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방과후학교를 꾸려가는 선생님과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이 공간을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것, 학교에서의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고민은 현재 진행형

공동육아가 추구하는 돌봄의 방식은 드라마 속의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청년이 외쳤던 바와 여러모로 맞닿아있다.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놀고 행동하며 자신 안에 내재된 욕구와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다. 따라서 기장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듯이, 공동육아의 돌봄이나 교육 방식은 제도권 내에 있는 주류의 교육 방식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이러한 공동육아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인데, 현재 전국의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방과후교실 수가 100여 곳이 채 안 되는 것³은 이 분야가 기존의 교육 방식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낮은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실제로 공동육아협동조합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선뜻 다가오거나 적응하는데 어려워하는 학부모, 선생님도 있다. 우선 제도권 주류 교육 방식이 아닌 대안적 방식의 교육인 데에서 오는 낯섦이 가장 크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부모가 운영, 재정, 시설, 홍보 등 역할을 나누어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행정처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과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결정이 필요한 많은 사항에 있어서 논의해야 할 상대가 많고 복잡해진다는 것이 어려워하는 점 중 하나다. 때문에 공동육아 교육공동체 또는 대안학교와 같은 대안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이 협동조합의 교육 방침과 배치되어 겪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숙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CCTV 설치 문제였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조합원들 모두가 CCTV가 없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사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있지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아직 협소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들의 교육관을 지켜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색깔을 더욱 살려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건강한 먹거리를 고집하는 것이다. 단순히 유기농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생협으로부터 유기농 급식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았다. 기장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식자재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에 보탬이 되었다. 일

3. '공동체와 공동교육' 홈페이지 10월 기준 전국 공동육아 현황(<https://www.gongdong.or.kr>)

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보육비 부담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녀들에게 가정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믿을만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만족하고 있다.

교육 내용 역시 협동조합 내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장공동육아협동조합은 올해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모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었다. 지역사회 내의 다른 교육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마을활동가와 협력,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장공동육아협동조합은 지역 내 교육공동체인 철마씨앗, 소두방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두 단체 모두 기장군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부모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장공동육아협동조합과 공유하는 점이 많다. 마을의 어른이나 사학자를 모시고 오래된 마을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견학하는 ‘마을 알기 프로그램’이나,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듣는 특강 프로그램 등 기존의 협동조합 혼자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을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고민을 품은 채 부모들은 다양한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어떤 부모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청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거렸을 테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전국의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방과후학교 중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시 지역에서도 대안적인 돌봄과 공동육아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 지역에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인프라가 더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혹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서, 생태 교육에 열려있는 자연과 안전한 주변 환경을 떠올려본다면 농촌 지역 역시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부산기장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자녀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나들이하는 아이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콩 한 알에 '공생', 콩 두 알에 '나눔', 콩 세 알에 '자립'

콩세알



-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배우개길69번길 27-13
- 단체명 (주)콩세알
- 주요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친환경 농가지원, 고령인 및 귀농·귀촌인 농업 활동 지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대상 농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한편, 강화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키워드 사회적기업, 사회적 농업, 사회적농장

콩 한 쪽에 담긴 나눔의 가치

우리나라 옛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과 정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삶의 가치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주)콩세알'이다.

봄이 오자 할아버지와 작은 아이는 씨앗을 뿌렸어요.
콩 세 알 팔 세 알, 옥수수도 기장도 모두 세 알씩.
할아버지가 새들에게 말했어요.
“한 구멍에 세 알씩 묻었으니 한 알씩만 먹으렴.
한 알은 두더지 뚫이고, 한 알은 우리 뚫이야.”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해. 나도 참았거든.”

작은 아이가 말했어요.

새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 윤구병작, '콩 세 알 팔 세 알' 본문 중 中 -

동화 속 이야기처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콩을 심을 때 세 알씩 심었다고 한다. 한 알은 벌레나 새가, 또 다른 한 알은 이웃이, 나머지 한 알은 심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다. 이처럼 '콩세알'이란 이름은 나눔과 공생, 자립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콩세알이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나눔'은 농촌의 사회적 과제를 자발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생명'은 농촌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농촌을 재생하는 것이다. 셋째, '순환'은 친환경 농업 견인과 도·농 교류 활동을 통해 신활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콩세알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5년 서정훈 대표가 귀농하면서부터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했던 서정훈 대표는 당시 감리교 기관에서 생활협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했다. 유기농 농법과 농산물을 매개해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생태학적 인간론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기회를 만들어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고향인 인천 강화군으로 돌아온 서정훈 대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 가공 분야에 뜻이 맞는 마을의 토래 5명을 모아 일벗생산공동체를 결성했다. 함께 일하고 더불어 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일벗생산공동체는 사회적기업(주)콩세알의 전신인 셈이다. 서정훈 대표는 농촌을 떠나있었던 탓에 농업 기반이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생산에 판매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무엇일까 생각했고,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콩'이었다. 그렇게 콩 재배와 가공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과 작목반을 꾸리고, 콩을 수매해 가공,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농민과 농촌을 연계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고민했고, 2008년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써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촌형 사회적기업이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선두에서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으로

콩세알은 사회적기업 운영 규칙에 따라 고령인,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알코올중독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가족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 50%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가공팀, 영농팀, 사회적 농업팀, 물류팀, 식당팀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민주적 운영 구조를 지향하고 사회적 목적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생활과 노동과 삶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세워진 콩세알은 기업의 이념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콩세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마을이 형성됐다.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 가족, 고령인, 취약계층, 농업인 등이 어우러져 육아 및 돌봄을 함께하며 더불어 살기를 실천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제공 및 식자재 공급과 귀농 지원을 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가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통합돌봄네트워크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회

또한, 콩세알은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고령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돌봄 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배제를 겪는 이들을 영농활동 매개로 사회에 통합하려는 실천'을 말하는데,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래의 역할 외에도, 농업 활동과 결합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농업 활동에 내재한 치료적 요인을 활용해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지식·기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

하는 등의 실천”으로 정의된다.¹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및 교육 등을 포함해 농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고용해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사회적 농업에 해당하며,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세알의 사회적 농업 활동은 조직 내 사회적농장팀을 필두로 이루어지며,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 노인복지센터, 강화지역자활센터,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강화장애인거점학교, 양사 친환경작목회, 달빛고은마을, 서구 민중의집, 나스솔레 등 지역의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공세알이 수행한 다양한 사회적 농업 활동 중 ‘나스솔레 산업실습’ 프로그램은 장애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나스솔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세알 가족 농장’은 강화 관내 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 여덟 가정이 참여해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150평의 공동 농장을 운영한다. ‘일일 두부체험’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열두 가정과 감룡초등학교 4학년생 80명,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이 참여해 두부 체험을 진행하고, 사회적 농업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공세알 농사학교’는 주 1회의 정기 프로그램으로써 강화군 관내 정신질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은 농업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 농촌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농사학교



한살림돌봄센터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년 발간한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보고서의 정의를 따른다.



달팽이농장

‘콩세알 노농두레’ 프로그램은 인천서구 민중의 집 소속의 노동자 취약계층회원들이 월 1회 참여하여 농활, 두부체험, 1일 캠프 활동을 하면서 노-농의 연대를 다진다. ‘자급마을공동체’는 달빛고운마을에 거주하는 다섯 가정이 2,000평의 논농사를 함께하는 농두레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돌봄농장’은 강화노인복지센터의 요양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나들이 식사 대접, 두부체험을 분기별 1회 운영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농두레’라고 해서 주변 농가들의 농기계 작업 등을 도와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환자 및 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농두레



코로나블루 두부체험

2022년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학교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루어졌다.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 ‘달팽이 농장’은 느릿느릿한 농장이라는 의미로, 특수학급 초·중학생들이 방문해 텃밭 돌보기, 게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강화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분기별로 운영하던 어르신 대

상 프로그램을 한 달에 1~2번으로 확대 운영해 어르신들이 콩세알로 소풍을 와서 식사도 하고, 놀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콩세알은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농업 분야의 선진 사례로서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콩세알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으로서 경인 지역에 있는 사회적 농장 11개소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 농장 105개소 중 사회적 농업 활동에 경험이 많은 농장 7개소를 광역 거점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농업 경인권역 거점농장

삶과 노동과 생활이 함께 하는 터전

이렇듯 콩세알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함으로써 설립 초기에 농촌에서 이루고자 했던 다짐들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이자 농장으로써 자생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2011년부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됐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받고 있으나 이 또한 내년이면 끝이 난다. 현재 대부분의 인건비는 두부 가공 공장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대표 등 핵심 인력들이



조금 더 희생함으로써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정훈 대표는 이제까지 이뤄온 공세알의 행적과 성과들에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냉혹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케팅, 수익 창출, 인건비 집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마다 농업, 농촌과 관련된 정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며, 관련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도 가장 필요한 인건비 지출에는 제약이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농업 장비나 장치 등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농기계 설비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업체의 노력과 의지 또한 중요하지만, 원자재나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관이 존재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세알은 당장 내년부터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경인 지역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으로써의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자생력을 갖춰나갈 계획에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써는 특수강화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논의하여 약간의 자부담을 지拂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공세알은 마을 부지 3천 평 정도를 마련해 의료, 주거, 보건 시설 등이 갖춰진 통합 돌봄센터를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30여 명의 어르신을 수용하여 주간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마을주치의를 둬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가정 내 다양한 생활 지원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현재 기재부 및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해 건의하는 동시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출자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있지 않든, 혹은 나이가 많은 적든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돌봄 체제로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공세알이 품고 있는 다음 목표이다. 설립 초기, 목표했던 다짐들을 지켜냈던 것처럼 마침내 공세알을 중심으로 한 삶과 노동과 생활을 함께 하는 터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II

CHAPTER

일하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농촌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 **충북 영동**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남 창원**

빛돌배기마을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여성들의 든든한 지원군,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 단체명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주요내용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영동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새일센터
- 키워드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지원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연령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알파벳 M의 형태를 띤다.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에 들어 많이 감소하고, 40대 후반에 회복한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 역 U자형을 이루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의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의 경력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줄여서 새일센터는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경제활동을 그만둔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 새일센터는 센터가 지어진 지역 특성에 맞춰 일반형, 농어촌형, 경력개발형, 광역형으로 분류된다. 2021년 기준 전국에는 158개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 9곳은 농어촌형 새일센터다.

영동새일센터는 새일센터 사이에서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된 곳

이다. 그 비결은 영동군 여성과 산업, 즉 지역 특색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 교육 운영에 있다. 지역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결해 사회로 새로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동새일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농어촌형 새일센터로의 전환

영동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의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만들어졌다. 사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동새일센터는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영동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들의 수요를 파악해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영동새일센터가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확립한 것은 아니었다. 영동새일센터가 생겼던 첫해에는 취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무와 교육 프로그램만이 제공되었다. 여느 새일센터와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영동새일센터도 진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가 필요했다. 성과 비교 대상은 도시의 새일센터들이었다. 영동군의 인구는 약 4만 5천여 명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도시와의 경쟁이 어려웠기에 영동새일센터는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그러나 영동새일센터는 돌파구를 발견했다. 이전부터 포도나 복숭아 같은 과일이 유명했던 영동군은 귀농·귀촌인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던 지역이었다. 단순 과일 생산·판매에서 6차산업으로의 전환에 발맞춰 영동새일센터는 2015년 새일센터 사업 유형화 개편에 따라 농어촌형으로 센터 방향성을 바꾸었다.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사무 교육훈련만 제공했지만, 농어촌형 전환 이후에는 영동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지역 특성 기반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주선하고 지역활성화센터, 시장상인회 등 외부 기관과 논의하며 활용적인 교육훈련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거기에 더해 창업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농일자리 협력망드레



취업 지원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회의



세심한 관심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영동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영동군 지역 여성들의 수요조사와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계획되는 직업교육훈련이다. 지역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창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세심하고 꼼꼼한 새일센터의 고민이 영동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올해 진행된 직업교육훈련으로는 사무행정 회계전문가 양성,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새일창업 역량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명만 보면 영동군의 어떤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과 놀라운 성과를 본다면 영동군 여성들의 수요와 이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영동군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무자동화 회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전산 행정기술은 작물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산 업무 역량인데, 오랜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동군에는 ITQ나 전산회계를 가르치는 전산학원이 없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는 것이다. 이 수요를 파악한 영동새일센터는 매해 한 과정씩 행정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영동군 여성들은 생산한 과일의 효과적인 홍보와 판매를 위한 기술에도 관심이 많다. 이에 따라 영동군의 주요 농산물인 포도, 복숭아, 사과 등 과일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교육의 핵심은 스마트스토어와 유튜브 관련 기술이다. 생산한 과실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스마트스토어와 유튜브 제작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행정 회계전문가 양성과정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또한, 영동새일센터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친환경 소재인 인공 토양을 활용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한 사례도 있다. 영동새일센터의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은 2021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이를 활용해 벽걸이 액자화분, 숨 쉬는 화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동군의 특산물인 포도를 활용한 와인소믈리에 창업 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은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영동군에서는 처음으로 와인카페를 열고 운영하고 있다.



창업사례



벽걸이 액자 화분(오수휴게소, 서울시 구로구청)



숨 쉬는 화분



영동와인카페(외부)



영동와인카페(내부)

이외에 취업 알선, 새일여성인턴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과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또한 경력단절이 오래되어 사회 적응이 힘든 여성들이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턴 기간 종료 후에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다면 기업과 인턴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영동새일센터

이렇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여성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동새일센터는 그 이후에도 꾸준한 지원을 한다. 사후관리 사업이라 불리는 이 사업은 구직이나 취업을 한 여성들에게 더는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일 년간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경력개발 상담 컨설팅이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

다. 구직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여성 휴게실, 여성 화장실처럼 여성 전용 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관련 공모사업과의 연계와 컨설팅도 제공한다. 창업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북 새일센터 본부에서 주최하는 창업대회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본부 창업아카데미와의 연계를 제공한다. 영동새일센터에서 입문 과정을 밟았다면 충북 본부에서 심화 과정을 이어서 배울 수 있다. 이처럼 수시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자에게는 사업 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영동새일센터의 세심한 관심은 교육 수료생들의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진행된 '수제과일 맥주 브루마스터 양성 과정' 수료생들은 영동의 특화자원인 과일과 꽃잎을 활용한 '수제맥주 아드리비툼 마을기업'이라는 주제로 '2020 충북 여성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영동새일센터는 새일센터 사이에서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된 곳이다. 2017년, 2021년, 2022년 무려 세 차례나 농어촌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교육 성과와 더불어서 영동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수료생 여성들을 향한 영동새일센터의 꾸준한 지원 덕에 거둘 수 있던 결과였다.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하는 영동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을 원하는 경우 맞춤형 컨설팅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영동새일센터는 새일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센터 이용자들로부터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취업자 200여 명, 창업 성공 5~10건을 배출한 성과가 이용자들의 평가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영동새일센터의 도움을 받은 여성들은 사무직부터 생산직, 서비스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 그러나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직장을 오가는 통근이 까다롭다.



상대적으로 집적도가 낮고 교통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20분밖에 안 되는 이동 시간도 영동군 여성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 영동새일센터는 센터 이용자들이 통근이 편한 영동군 내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센터 이용자들이 영동새일센터에 가지는 신뢰감을 더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과 일자리 활성화, 나아가 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영동새일센터에도 고민은 있다. 가장 큰 고민은 영동군의 인구 문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영동군에서 양질의 구직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프로그램 수강 인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프로그램은 신청자 경쟁률이 2: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매우 한정적이고 유입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창업 달성 건수라는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 또한 큰 어려움이다. 일반적으로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치고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창업을 3개월이라는 짧은 교육훈련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성과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구직자와 기업체 서로 간의 수요 차이로 인해 구직활동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동군의 주요 구성원인 60대 이상 여성들은 대개 농사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용직보다는 농사 휴지기에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한다. 한편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또는 농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확보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 이처럼 근무 환경에 대한 선호도, 기업체가 원하는 구직자와 구직 여성들이 원하는 기업체 사이의 간극, 농번기에는 일보다 농사를 먼저 살펴야 하는 여성들의 사정 등으로 인해 일자리 알선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새일센터의 지원사업과 정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문제다. 이 경우라면 기업들은 대부분 중앙부처 지원사업 쪽을 더 선호한다. 새일여성인턴 제도나 사후관리 사업으로 기업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이 되기는 하나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난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영동새일센터는 농촌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 직종이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젊은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을

기업과 협업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영동새일센터 관계자들은 새일센터 사업의 실질적인 개편을 원하고 있다. 새일센터의 성과 측정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취업시키고 창업을 성공하게 했는지 양적 지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는 물론 경력단절 여성들의 생활이 질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고민과 관심으로 영동군 여성들이 새롭게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동새일센터. 일하고 싶은,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이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영동새일센터의 행보가 기대된다.





농촌 천혜 자원으로부터
잠재력을 찾아서!

농업인 육성 마을 빗돌배기마을 다감농원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505번길 51-17
- 단체명 영농조합법인 빗돌배기농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요내용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과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농촌과 농업은 장래가 없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마을사업
- 키워드 빗돌배기마을, 다감농원, 6차산업, 농업인 육성 교육장, 미래지향 농촌 마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위치한 빗돌배기마을은 농지면적 62ha, 가구 수 20호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다. 작은 마을 규모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은 대산면만의 천혜 자원인 ‘다감농원’ 과수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농업생산과 농촌체험 관광산업, 나아가 귀농 귀촌 인구를 위한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 지역만의 천혜 자원을 활용하여 과거 장래가 없다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빗돌배기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빗돌배기마을 전경

빗돌배기마을의 다감농원

빗돌배기마을의 다감농원은 약 100년 전 김해 진영에 살던 일본 상인 다케노가 묘목 100그루를 심은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단감은 재배기온을 연평균 13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은 과거 함안군 진영부에 속하였던 지역이며 연평균 13도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단감 재배에 적합하였다.

유년 시절부터 단감 농사를 지켜보며 자란 강창국 대표는 농업 현장에 청년들의 열정과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다면 농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아버지의 작고를 계기로 집안 어른신들을 돌보기 위해 귀향하여 농원 경영을 준비하고,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단감연구소와 전국의 단감 농장을 14년간 방문하면서 단감을 연구하였다.

강창국 대표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원사업만으로는 고품질 단감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14년 동안 축적해온 단감 재배 노하우와 단감 재배에 관심이 있는 마을주민들 및 인근 농가들과 합심하여 빗돌배기마을에 전수된 전통 시비 및 경작 방식을 보다 과학적인 환경 관리 방안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실



천하였다. 2007년 농촌진흥청 탐프루트 단감 부문 대상, 2011년 팜스테이마을 대상, 2016년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발한 단감 재배방식을 인정받았다.

강창국 대표는 고품질 농업생산만으로는 마을 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 간 교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속 가능한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단감연구소 및 마을주민들과 협업하여 단감을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빗돌배기마을 내 ‘다감농원’을 체험형 교육농장으로 재조성하였다.

빗돌배기마을은 농촌관광 전담 및 전체 사업을 관장하는 ‘영농조합법인 빗돌배기마을 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좋은예감’, 농업 미래 인재 육성 및 생산을 담당하는 ‘다감농원’ 총 세 개의 경영체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경영체의 체계적인 활동으로 단감 종류 및 다양한 소포장별 유통방식을 개발하여 납품업체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연 3만~5만 명의 농촌체험객, 현재는 한국농수산대학의 현장실습 교육장이자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UPM 인턴십 교육장, 필리핀 카마리네스노르테 주립대학의 현장실습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빗돌배기마을은 2018년부터 청년귀농장기교육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빗돌배기마을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단순히 고품질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체험 관광, 국내외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장도 운영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촌 마을이다.



명품단감 상품화



체험형 교육농장



UPM 인턴십

농촌의 인식개선을 위한 빛돌배기마을의 노력

농촌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령화가 심각해 지역의 발전 동력이 약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농촌은 지역별 천혜 자원을 활용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기도 하다.

빛돌배기마을은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인 유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14년간 단감을 연구하여 얻은 고품질 단감 재배방식을 문서화하였다. 다감농원의 단감 문서화 자료는 고품질 단감 재배 과정, 단감을 활용한 가공, 단감 및 가공품 유통방식 등 단감을 활용하여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자료이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분기별로 내용을 갱신·관리하고 있으며,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식공유를 원하는 단감 지역단체를 위해 빛돌배기마을은 영농조합 '좋은 예감'을 매개체로 비교적 생산성이 저조한 인근 단감 지역단체에 단감과 관련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인근 단감 지역단체에서 생산한 단감이 일정한 품위를 통과하면 빛돌배기마을과 생산자표시를 함께 기재하여 전국 단감 매장에 공동 유통을 하고 있다.

단감 교육 강연은 단감 사업에 흥미를 느끼는 귀농·귀촌인을 유인하는 역할과 더불어 전국의 단감 농장을 운영하는 지역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빛돌배기마



을을 방문하는 체험객 중 연 2,000명 이상은 단감 농사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과 고품질 단감에 대한 지식공유를 원하는 단감 지역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다감농원의 강연을 통해 빗돌배기마을에 귀농·귀촌인이 유입되어 현재 빗돌배기마을의 인구수는 39명(남자 18명, 여자 2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력확충에 따른 고품질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인근 단감 지역단체와의 교류가 원활해지면서 협업 생산, 가공, 유통, 품질 개종이 가능해져 지역 상생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빗돌배기마을 농업 육성인 교육

빗돌배기마을의 향후 계획

빗돌배기마을은 현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모델 창출을 구상하고 있다. 녹색성장모델은 지역 경관 개선,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주민 역량 강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경관 개선 전략은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빗돌배기마을은 드넓은 친환경 습지 농경지와 빗돌배기마을만의 독뽕외와 둠병을 이용한 과수원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독뽕(뽕외)는 평지에 솟아 있는 독립된 구릉성 산지이며, 둠병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나 빗물을 가두는 인공습지이다. 이러한 마을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별 농사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단감 외 체리, 자두, 사과 등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재배하여 농촌다움을 더 부각하고자 한다.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농촌의 인구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전략이다. 빗돌배기마을은 단감 교육장과 육성소를 좀 더 확대하고 전문화하여 농촌 지역도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귀농·귀촌인을 유인할 계획에 있다.

마을주민 역량 강화 전략은 주민 개인의 자부심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상승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이다. 빗돌배기마을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농업 전문교육과 개방적인 마을 협의회를 실행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와 마을에 대한 주민 의식 그리고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상승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현재 농촌 마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경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을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금전적인 수익 창출로 농촌 마을의 지역경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 및 사업자 인증, 관련 설비 지원에만 치중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속화되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만의 매력이 될 수 있는 자원과 요소를 부각함으로써 귀촌·귀농인을 포함한 인구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빗돌배기마을의 다감농원은 천혜 자원을 보존하면서, 생산, 유통, 가공뿐만 아니라 농촌체험, 농업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생산 위주의 농업 활동에서 가공유통, 식품산업, 지역개발, 농업인 복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농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 활동이 여러 농촌 지역에서 실행된다면,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고 현재 쇠퇴하고 있는 농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III

CHAPTER

청년이 활기를 불어넣는 농촌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 경북 경주
마카모디

•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

• 경북 칠곡
아트랜스파머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을 변화시키다,

마카모디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안길 15 '1952 감포'
- **단체명** 마카모디
- **주요내용** 경주시의 농촌지역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 콘텐츠 기획사로, 프리마켓 개최, 감포읍 주민과의 협업으로 복합문화공간 '1925 감포' 운영 및 청년마을 사업 '가자미 마을' 운영 등 진행
- **키워드** 지역 콘텐츠, 청년마을, 로컬 크리에이터, 유희시설

최근 들어 많은 청년이 농촌이 가진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연경관,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방문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관심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청년정책지원 사업, 청년마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들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마카모디 소개

자료: 가자미마을 홈페이지(<http://www.gajame.com/>)

경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카모디’ 역시 청년단체로, 경주시 구석구석의 농촌지역에서 전례가 없는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카모디’라는 단체 이름은 겉보기엔 외국어 같지만 사실 ‘모두 모여라’라는 의미의 경주 사투리다. 이러한 의미처럼 마카모디는 소외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경주시의 농촌지역에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감포읍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주민 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감포읍을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들의 특별한 여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장, 마카모디 프리마켓

마카모디의 출발지는 2014년 경주 시내에서 시작한 프리마켓이다. 마카모디의 공동 대표 김미나, 이미나 대표는 당시 경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단순히 마음에 맞는 청년들끼리 재밌는 이벤트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프리마켓을 열게 되었다. 이는 당시 경

주에서 재밌는 콘텐츠에 목말라하던 소위 방구석 예술가들과 소비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프리마켓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시내가 아닌 경주시의 구석진 농촌지역으로 프리마켓의 터를 옮기게 되었다. 바로 지금의 프리마켓 장소인 경주시 산내면 우리리에 위치한 폐교 ‘꿈우라-우라분교’이다.

산내면은 경주 시내에서 40분가량 꼬불꼬불한 좁은 산길을 올라가야 있는 30가구 규모의 작은 산촌이다. 이미나 대표의 배우자가 이 폐교를 임대하여 에너지 체험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프리마켓도 이곳에 터를 잡게 된 것이다. 산내면에서의 첫 프리마켓은 500여 명의 소비자가 방문하면서 조용하기만 했던 산내면 일대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적한 농촌지역으로의 나들이를 원하던 소비자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잔디밭에서 25팀 규모의 생산자들이 개성 넘치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버스킹 공연, 영화제, 공방 체험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등 프리마켓은 그야말로 산골 마을의 작은 축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2~3달의 한 번씩 개최하면서 끊임없이 이 산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프리마켓은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도 자신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철저한 생산자 마켓으로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건만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들의 기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카화폐’ 제도를 만들었다. 마켓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참가비 5,000원을 내면 그에 해당하는 마카 화폐로 교환하여 생산자들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마카모디 프리마켓 산내면 꿈우라-우라분교 개최

자료: 산내꽃꽃마루 블로그(<https://blog.naver.com/cholssack/222032134766>), 마카모디 제공

현재 프리마켓을 기획 및 운영하는 조직은 마카모디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마카모디의 협업 주민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경주 주부 7명의 모임이라고 한다. 마카모디가 본격적으로 지역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리마켓의 창설을 함께한 지역 주민 단체가 전담하고 있다. 큰 수익을 창출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을 터전으로 하여 지역 청년 예술가와 소비자가 함께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마카모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로의 도약, 그리고 감포읍과의 만남

마카모디는 2019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로컬 콘텐츠 기획사로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경주문화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와 관련된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동안 마카모디가 경주에서 해온 일들은 마을 축제 기획 및 진행, 아트페어 개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현지인이 소개하는 경주 로컬트립, 여행자를 위한 질문 카드 ‘스톤웨이브’ 제작 등 다양하며, 현재 9명의 직원이 힘을 합하여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마카모디가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 중에서 감포읍의 유희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925감포’의 운영과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청년 마을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포읍의 가자미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로컬



콘텐츠 기획사로서 마카모디의 활동 영역은 경주시 전반을 아우르지만, 2021년 감포읍과의 만남은 마카모디의 여정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현재 마카모디의 사무실은 감포읍에 있으며, 지역 주민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마카모디와 감포읍의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마카모디가 감포읍에 터를 잡고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1925 감포’와 ‘가자미 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 콘텐츠 기업과 농촌지역 간의 새로운 협력 및 상생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감포읍 주민 단체와의 협력으로 탄생한 ‘1925 감포’

마카모디와 감포읍의 인연은 마카모디가 ‘스톤웨이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하려고 2021년 초 감포읍에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감포읍은 감포항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카모디팀은 감포항 인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1925 감포’가 있는 뒷골목을 찾게 되었다. 꼭 비밀의 장소처럼 숨겨져 있는 이 뒷골목에 옛날 목욕탕, 오래된 돌창고 등 지역의 소소한 역사를 담고 있는 유휴시설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곳을 활용하면 재밌는 지역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인근 카페 주인에게 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니 한 주민을 소개해주었다고 한다. 이 주민분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마을의 고령화를 걱정하며 젊은 세대의 유입과 마을 발전에 관심이 있던 주민 단체를 만나게 되었다. 바로 감포읍 토박이인 중장년층 주민 5명으로 구성된 모임 ‘함께 가는 길’이다. 이 주민 단체는 청년들로 구성된 콘텐츠 사업체 마카모디가 이 마을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렇게 감포읍 주민 단체와 마카모디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주민 단체에선 뒷골목의 유휴시설 등 중에서 ‘목욕탕’을 가장 먼저 활용하여 변화의 불을 지펴보라고 추천하였다. 과거에 이 목욕탕은 마을주민들이 모여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마을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주민 단체는 이 건물을 매입하여 마카모디에게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었다. 마카모디는 이 공간을 가지고 복합문화공간

‘1925 감포’를 만들었다. 1925는 감포항이 개항한 연도이다. 초기 리모델링 비용은 경주시의 테마 관광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고, 공간의 컨셉, 활용 등에 대한 주민 단체와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2021년 말에 문을 열었다.



1925 감포



뒷골목으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과 같은 통로를 지나가면 1925 감포를 마주할 수 있다. 과거의 목욕탕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예스러우면서도 독특하다. 과거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이들에겐 가족과 친구와 주말마다 방문했던 목욕탕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관광객들에겐 마을의 과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곳은 평소엔 카페로 수익 활동을 하면서, 마카모디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이벤트,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주문화재단의 용역사업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로 목욕하는 날'이라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전문 작가들이 직접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페 운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현재 마카모디 소유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모아 마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 모임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감포읍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청년들이 모인다, 가자미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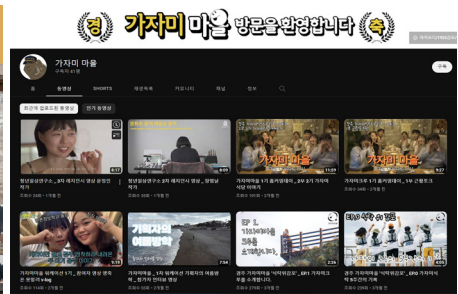
마카모디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되었다. 마카모디는 감포읍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감포읍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가자미'를 키워드로 청년마을을 기획하였다. 기획과정에서도 주민 단체와 긴밀히 논의하였고, 심사 과정에도 공모 참가팀 중 유일하게 주민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특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주민 단체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주었다.

가자미 마을 사업에선 감포읍에 단기 또는 장기간 머물며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숙박 및 사무실 공간과 활동비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하고 시도해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이곳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여 정착할 수 있다.

사업 첫해인 올해 진행된 사업들은 TV 예능프로그램인 ‘윤식당’을 모티브로 하여 ‘가자미 식탁’과 ‘가자미 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청년 참가자들이 이곳에 들어와 지역 특산물로 레시피를 개발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컨셉을 선택한 이유는 농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좀 더 가볍고 재밌게 느껴지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농촌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마카모디는 참가자 청년들이 직접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어 농촌에 들어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무겁기보단 유쾌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가자미 마을 인스타그램



가자미 마을 유튜브 채널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프로그램 ‘가자미 식탁’에서는 참가자 12명이 5주 동안 감포읍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탐방하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레시피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총 5개의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마지막 주엔 지역 주민, 지역 관광객, 관계자 등을 초대하여 최종 레시피를 선보일 수 있는 소셜다이닝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3명의 참가자가 감포읍에 정착하였다.



가자미 마을 발대식(좌), 가자미 식탁 소셜다이닝(우)

자료: 가자미 마을 인스타그램



이어서 하반기에는 감포읍에 정착한 이들 3명이 주도하는 ‘가자미 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청년마을 사업비로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이들 3명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분식류의 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 과정 역시 영상으로 담고 있다.

동시에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가자미 원정대 프로그램’과 ‘가자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원정대 프로그램에선 참가자가 1박 2일 동안 가자미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감포읍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반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선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가 2주 동안 감포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2주 동안 감포읍을 탐방하며 맛집 지도를 완성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가자미 마을과 감포읍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제작하였다. 다른 참가자는 감포읍의 좁은 골목길인 ‘해국길’에 담긴 이야기를 엮어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방탈출 게임을 만들기도 했다. 이 참가자는 감포읍 주민 중에서 체리 와인을 생산하는 사업가와 협업하여 창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자미 마을 사업에서는 농촌살이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감포읍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는 이렇게 감포읍과 연이 닿은 이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꾸리면서 지역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가자미 마을 사업 전반부는 가자미의 미를 맛 미(味)로 해석하여 요리와 식당 컨셉으로 진행하였다면, 후반부는 아름다움 미(美)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즉, 감포읍의 문화 및 역사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가자미 식당 포스터



감포읍 맛집 지도



해국길 방탈출 게임



감포읍의 지난 100년의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다.

마카모디는 앞으로 프리마켓을 포함하여 경주시의 로컬 콘텐츠 기획사로써의 일을 지속하면서도, 감포읍을 터전으로 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포읍과 인연을 맺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과 청년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진 특별한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2025년은 가자미 마을 청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며, 감포항이 개항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마카모디에게 다가올 2025년이 지난 100년의 감포읍의 가치를 소중히 담아 주민과 함께 새로운 지역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희망찬 100년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이길 기대해 본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률을 응원하는 달빛탐사대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활공장길 122 플레이어 하우스
- **단체명** 소상공인협동조합 가치살자
- **주요내용** 청년 인구의 문경 지역 경험 및 정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청년들은 지역 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관광문화 자원을 발굴
- **키워드** 청년, 지역 경험, 관계인구, 창업, 문화

지방소멸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지역 경험 및 정착 지원 활동은 그 무엇보다 주목받을 만하다. 1970년 약 16만 명이었던 문경 인구는 2020년 약 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경북 내에서도 주요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고령화 및 저출산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대도시 이주가 큰 원인이었다.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일자리 확대 등 문경은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문경시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지역에서 직접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이에 힘입어 지역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여 실행된 달빛탐사대 프로젝트는 자신이 사는 지역, 특히 대도시를 떠나 문경에서 살아보고 싶은 청년들, 자신의 적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삶을 개척하길 소망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은 온전히 자율성을 가지고 직접 실험적인 프

로젝트를 기획·운영해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며 자아를 실현한다.



청년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가치살자는 문경의 비영리단체나 사업체 직원들이 모인 커뮤니티이며, 가치살자의 주재훈 대표는 서울 및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인 문경으로 돌아와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 중이다. 문경에 다시 왔을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본받아 그도 지역에 처음 와서 우왕좌왕하는 청년들을 포용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주 대표는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문경에 살거나 문경을 새롭게 찾는 청년들이 문경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속에서 공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달빛탐사대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달빛탐사대 참여자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다. 달빛탐사대는 지속적으로 청년 정착에 관한 실험을 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다. 1차연도(2020)에는 총 81명이 참여, 2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2차연도(2021)에는 총 41명이 참여하여 26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예를 들어, 달빛탐사대는 창업을 하여 문경에 정착하는 이들과 함께한다. ‘오그린샐러드’나 ‘카페, 얇이’와 같은 곳들은 청년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문경중앙시장 내 오미자네 청년몰에 입점해 창업하였다. 그리고 로컬 그로서리샵 ‘헬로우 문경’이나 여성 게스트하우스 ‘개취존’ 등도 지역에 숨어있는 자원들을 발굴 및 재해석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활동 공간



달빛탐사대 청년 활동

달빛탐사대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청년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직접 걸으면서 탐사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로컬탐사를 하며 지역을 직접 느끼고 알아간다. 지역을 살살이 살펴보다 보면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발견되고, 달빛탐사대는 이러한 유휴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비어있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공간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였다. 커뮤니티센터인 달맞이스페이스와 보름달오피스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달맞이 스페이스는 달빛탐사대의 모든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센터이다. 작은 동네 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과 사람이 정을 쌓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인데,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한다. 그리고 보름달 오피스는 문경시에서 지원받은 적산가옥이다.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흔히 귀신 나오는 집으로 불리는 곳을 청년들이 정성을 들여 직접 꾸몄다. 여기서 자신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야외 공연을 개최하기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청년들은 서로 친해지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버려질 수도 있었던 공간들이 청년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확장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의 융합

달빛탐사대는 청년들이 마을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특히 외지에서 온 젊은 사람들은 지역 토박이분들과 무엇인가를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달빛탐사대는 청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며 마을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었지만 특히 농업인들이나 농촌 주민들에게 더욱 가혹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짬단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마을 주민 50여 명이 관객으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달빛탐사대 청년들과 직접 곤포 사일리지(생뽕집)를 나르고 쌓아 무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예술단체들도 직접 마을을 찾아 힘을 보탤고,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농촌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주민들이 세대를 넘어서 청년들의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달빛탐사대 청년들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색다른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지역 관계인구 확장

달빛탐사대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점은 문경 지역의 청년 관계인구를 확장하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프로그램 참가자 122명 중 지역참여자 45(46%)명이었고, 타지역 참여자는 77명(64%)이나 되었다. 그중 22명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문경 내에서 취창업을 하였고, 이들을 포함한 50여 명은 프로젝트 지속 및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문경을 방문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달빛탐사대는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경 왕래가 잦은 이런 청년들은 잠재적인 문경 정주 인구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을 같이 이끌면서 문경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같이 살기' 위한 노력

향후 청년의 지역 체험 및 정착을 위해, 달빛탐사대는 보다 다양한 기간의 로컬 콘텐츠 경험들을 제공하고 단기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측면에서는 정착 스터디 프로그램, 로컬 클래스,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 특히 신규 로컬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지역 비즈니스 채널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

달빛탐사대의 노력들이 더 빛을 발하려면 중앙정부 또는 문경시 지자체의 유·무형적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문경시에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서포트해줄 수 있는 청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생겨야 할 것이며, 특히 창업이나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필수적인 메이커스페이스도 정착되길 바란다. 달빛탐사대가 지닌 액션 플랜들이 대내외적 지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경 지역과 그곳에서 살거나 관계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지역의 문화자원을 만드는 청년들, 아트랜스파머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52
- 단체명 아트랜스파머
- 주요내용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의 문화, 예술, 인문 자원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걸친 마을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연대하며 그 마을의 가치와 자원들을 공유·확산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활동 수행
- 키워드 농촌 청년, 마을자원, 지역 문화, 마을공동체

아트랜스파머는 대구의 한 독립문화예술단체의 경북지부였다. 칠곡군에 위치한 이 지부는 2019년 독자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모든 활동들의 근간에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민들과 잘 어울려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깔려있었다. 칠곡 지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와서 칠곡과 관계를 맺거나 혹은 정착해서 사는 청년들이 아트랜스파머의 일원이 되었고, 그들은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함께 해나가기 시작했다.



잊혀져가는 말들의 기록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속 말들은 지역의 문화이고, 문화는 이 말들로 표현된다. 언어에는 한 지역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 아트랜스파머는 지역의 ‘말’에 집중

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말, 지역의 역사가 담겨있는 말이지만 그 역사가 변함에 따라 더이상 젊은이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 소멸될 수 있는 ‘말’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의 말말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부터 사용했던 사투리, 은어 등을 수집하고 그들의 삶과 함께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아트랜스파머는 이러한 수집물들을 모아 말모이 사전 편찬하였다. 누군가 발굴하지 않으면 숨겨져 있었을 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투박하지만 어르신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이야기들은 두고두고 전해질 수 있었다.

칠곡말모이사전의 첫 장은 ‘농경지 말모이’다. 농업에 관련된 말들을 모은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쓰는 ‘삽’이라는 말을 어르신들은 ‘수근포’라고 한다.

“농사 지을라카른 수근포 있어야 댕께 맨날 수근포 우짤노 카문서 찾아 댕겼찌. 수근포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다.”

「칠곡말모이사전 우리의 말말말」 27쪽, 정순임 할머니

두 번째 장은 ‘미군 부대 후문 말모이’다. 칠곡군 왜관읍 석전2리는 6·25 전쟁 당시 한미 양군이 연합작전을 펼쳤던 낙동강의 중심지에 위치했고, 1960년대부터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토박이 원주민들은 그들만의 말들을 탄생시켰다.

“내가 미용실을 했었는데 외국 애들이 미용실을 비리샵이라고 하더라고”

「칠곡말모이사전 우리의 말말말」 57쪽, 김옥배 어머니

아트랜스파머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뷰티샵을 이 지역 분들이 비리샵으로 계속 써오셨던 것 같으면서, 여기서는 비리샵이라고 말하면 미용실로 다 알아듣는다고 한다. 이렇게 이 지역에서만 쓰이는 말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암호처럼 느껴지는 말들,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남은 말들이 기록되고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이 말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말들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너무나 재밌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거나 창조하는 일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서 자신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 굉장한 의미를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들만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르신분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청년들과 함께 말들을 기록하는 과정들을 함께 했다. 다른 세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데 어울린 작업이었다.



마을을 관찰하고 느끼는 어린이들

아트랜스파머는 칠곡군 관내의 초등학생들과 각 마을을 방문하여 돌아다닌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학교를 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실 다른 마을 풍경은 어떠한지, 누가 사는지 잘 알기가 어렵다. 특히 칠곡은 도농복합지역이라 농촌에 대해 아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어린이 기자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글로 기록한다. 자신이 전혀 알 수 없었던, 가깝지만 멀었던 동네의 사람들과 풍경들을 만나는 것이다.

“석전2리에는 예쁜 벽화가 엄청 많아요. 지도를 따라서 벽화를 구경했어요.

예쁜 글과 그림을 보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골목 끝에서 외국인을 만났어요 ... (중략)”

「사진으로 만나는 별의별 사람이야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김녕희

“학상리 주민들은 학과 함께 살다 보니 학춤도 참 잘 추는 것 같아요.

나도 따라 하얀 옷을 입고 춤을 댔어요. ... (중략)”

「사진으로 만나는 별의별 사람이야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손동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자단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은 굉장히 많이 웃는다고 한다. 낯선 동네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힘들 법도 한데,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느껴지는 것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살던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있는 농촌 마을들이 재미있고 신기하였는지 계속 가고 싶다는 말을 할 만큼 반응이 좋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사진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한 측면에서 아트랜스파머의 활동은 그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아트랜스파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수행한다. 칠곡군청 등 지자체 사업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뢰나 요청이 있을 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 아트랜스파머가 그들과 함께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의 이장이나 부녀회에서 마을의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들 간의 사이도 더욱 좋아지게 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 청년들은 마을로 직접 가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유용할 것인지 구상하기도 한다. 다만 이때의 프로그램들은 아트랜스파머가 제안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주민과 함께 만든다. 아트랜스파머는 그 프로그램들이 잘 짜이고 실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청년들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이나 기간 등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지라고 한다.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 마을활동가 등 마을을 이끌어가는 일부 구성원만의 의지만 있어서는 힘들고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동네를 함께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할거야'라는 태도가 있으면 아트랜스파머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였을 때 마을은 느려도 분명히 더 나아지고 주민들의 역량은 더욱 발전된다고 한다. 이때 마을의 경제적·비경제적 자립이나 지속성 정도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화와 주민들 간의 관계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



마을만들기-주민역량강화 활동



우리가 하는 일에 한계는 없다

아트랜스파머가 하는 일들은 정말 다양하다. 남성 중심의 유교식 제례인 동제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라디오 낭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더욱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일을 한다. 이러한 모든 일을 되짚어보면 아트랜스파머는 다른 단체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아트랜스파머는 거창하지 않아도, 어쩌면 소소하고 소박해 보이는 지역의 문화들도 소중히 남기려고 한다.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인문 자원들은 사실상 보존되기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거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기 쉽다.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보살피는 일은 그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그리고 아트랜스파머는 전 세대의 마을 주민들을 아우른다. 지역의 아동들이 마을을 탐험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여 마을공동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사투리나 은어 등도 탐구하면서 그들과 오랜 시간 단단하고도 깊은 사이가 되기도 한다. 아트랜스파머의 주된 구성원들이 젊은이들이임에도 이들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아트랜스파머는 마을 컨설팅이나 주민역량 강화 활동을 할 때도 큰 역할을 한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찾는 일들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 마을 고유의 문화들을 존중하는 마음,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 기존의 좋은 것들을 보존하면서도 완전히 색다른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청년들만의 감각이 모여 건실한 컨설팅과 진정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트랜스파머의 발전과 그들이 앞으로 할 일들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이 계속 원활히 활동하는데 있어서 더욱 필요한 점들도 있다. 정부나 지자체 사업 등의 경우에는 어떤 획일화된 평가지표나 가시적인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산 문제가 얽혀있어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겠지만 청년들과 마을에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더욱 진정성 있는 활동과 문화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의 측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청년들, 특히 외지에서 온 청년들은 일정 기간 이 지역을 파악하고 애착을 가지고 정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런 지속성이 계속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은 농촌 지역에서의 청년들의 활동이 많은 주목을 받고 정책적인 지원도 증가하였지만, 사실은 단기 처방식 정책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장기간이 요구되는 문화 관련 활동들에는 제약이 많기도 하고, 청년들의 이미지가 소비될 뿐 다른 문화 사업들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들이 보완된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아트랜스파머의 노력과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미래에 더욱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IV

CHAPTER

주민이 한마음으로 꽃피우는 농촌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 경기 양평

달강세월협동조합

• 강원 양구

사단법인 디엠지편치볼숲길

• 경남 합천

마을지기목공소

• 제주

세화마을협동조합 & 질그랭이거점센터

• 제주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곳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함을 더하는

달강마을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심안길 1, 세월정미소 커뮤니티센터
- 단체명 달강마을&달강세월협동조합
- 주요내용 달강마을의 공공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주민 중심 협동조합으로, 마을달인 발굴, 달인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운영, 여행 코스 개발 등 양평 대표 문화마을로의 성장을 도모
- 키워드 마을공동체, 문화마을, 마을여행, 마을달인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산중 옛길'로 알려진 서석산 골 안 계곡부터 남한강까지를 끼고 있는 이 농촌 마을은 '세월(洗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을 주변의 강물 위로 스며드는 달빛이 매우 아름답다. 그래서 세월리는 '달강마을'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빼어난 자연경관과는 별개로 세월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곳이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결국 세월리는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세월리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시작은 2008년 세월초등학교를 다시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세월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했고 많은 주민이 마을로 유입됐으며 그 결과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최근에는 세월리가 세월1리와 세월2리로 분할될 만큼 인

구가 늘었다.

세월리가 변화할 수 있던 비결은 아이, 어른, 원주민, 이주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마을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달강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특별하게 대한다.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함을 더할 줄 아는 그들은 서로를 달인이라고 부른다. 그 덕분에 이웃끼리 더욱 깊은 관계를 나누고 소통한다. 이러한 달강마을의 정겨운 분위기와 세월리 발전 뒤편에는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달강세월협동조합이다. 그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달강마을 변화의 시작

세월리 달강마을의 변화는 14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세월초등학교는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때는 300명도 넘었던 세월초 학생 수가 50명 남짓으로 줄어 정원 미달로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마을이 하나로 뭉쳤다.

시작은 축제였다. 마을이 살기 위해선 학교가 되살아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과 교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마을 학교 축제를 기획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받아, 전교생과 교사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 마을학교축제 ‘달님과 손뼉치기’를 기획하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다룬 연극도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 공연을 관람한 주민들 역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마을의 미래에 어두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마을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노력 끝에 2010년부터 전입생이 늘기 시작하였고 세월초는 혁신학교,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언론에 주목받고, 학교에 대한 입소문이 늘어났다. 더불어서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좋게 본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세월초에 입학시키기 위해 마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은 커다란 결실이 되어 폐교 위기였던 세월초는 현재 100



명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학교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또한, 150호밖에 되지 않던 세월리의 가구 수는 2021년 370호로 2배 이상 늘어나며 마을에는 다시금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시작한 문화 바람은 마을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나와 마을 곳곳 주변 환경을 교재 삼아 수업하고 체험을 했다. 마을은 마을대로 축제와 행사를 열기 위한 운동장, 교육장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와 마을은 소통했고, 어린이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다.



세월마을 학교축제



세월 주민 마을운동회

달인과 함께하는 마을 여행

2015년부터는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문화마을로써 한걸음 가까워졌다. 특히 2018년 '경기문화재단 지역 문화 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세월리의 대표 문화 행사로 여겨지는 마을 여행이 기획됐다. 마을 여행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처음 한 것은 세월리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었다. 옛 지명에 담긴 뜻과 세월리 곳곳에 숨 쉬고 있는 근대사 속 나루터, 정미소, 양조장, 금광굴의 역사를 찾았다. 나아가서 달이 세수한다는 세월리의 의미와 연결하여 마을의 달인을 모시기 시작했다.

세월리 주민들은 누구나 달인이 될 수 있다. 꽃을 잘 가꾸면 꽃 달인, 컴퓨터를 잘 다루면 컴퓨터 달인, 첫 시작은 말장난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세월리 주민들은 서로를 달인으로 부르며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그 안에 특별함이란 가치를 부여한다. 짚풀의

달인, 재활용 달인, 도예의 달인, 생태의 달인처럼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월리의 달인들은 마을 구성원 모두에게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준다. 이렇듯 마을 주민들을 따뜻하게, 또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 마을 달인은 달강마을의 여행 테마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을달인 작품



도예달인



원예달인



발효달인



생태요리달인

2019년에는 세월리에 사는 작가들이 힘을 모아 남한강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포토존 '세월리의 달'을 제작하고, 마을 달인이 집에 세운 솓대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일곱 색깔 솓대'를 만들기도 했다. 이후 '달빛 머문 강마을 세월'이라는 타이틀로 옛 이름을 간직한 길부터 골안 계곡을 지나 남한강까지 이르는 길에 이정표를 설치했다. 또한, 달인 캐릭터가 들어간 마을 지도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탐방객들이 마을 달인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여행'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세월리 마을 여행 코스는 길이가 6km가 채 되지 않는 짧고 간단한 코스다. 세월리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인 서석산과 골안계곡에서부터 마을 안길을 지나 남한강으로 이어



진다. 코스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서는 달강마을 주민들의 따뜻함을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다. 만능할배, 감성할배와 함께하는 모종삽 꾸미기, 마리골드 잎을 직접 따서 손수건을 염색하는 체험, 직접 딴 꽃과 풀을 곁들인 점심 식사,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코스, 포토존 사진 촬영 등 마을 여행 코스 모든 곳에 달강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



달인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지도

그러나 2020년부터 이후 2년간은 코로나19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겼다. 그 탓에 시범 운영을 하였던 마을 여행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로 마을 여행이 계획했던 것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주민들은 주변 지역에서 개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이 방문해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즐기고 가는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다. 특히 침체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GLK사회공헌재단에서 기획한 '대한민국 여행테라피' 사업을 통해 방문했었던 고려인 단체 관광객들은 마을에 활기를 가져다주었다. 방문객들이 마을 달인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은 외부 인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시범 운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세월 정미소 탄생, 새로운 시작

코로나19로 마을 여행 프로젝트를 떠나보낸 달강마을은 2020년 ‘세월 정미소’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과거 세월리에 있던 정미소의 가치를 보존하고 마을의 문화적 중심지로 새롭게 구성하며, 양평군 문화창작소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마을회관 옆 20년간 비어있던 공간을 커뮤니티센터로 재탄생시켰다. 2020년 ‘경기도 유희공간 문화 재생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 센터는 경기도와 양평군의 예산 5억 원을 들여 조성되었으며, 2023년까지 양평군으로부터 1년당 1억 원의 예산 지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상주 직원 1명을 두게 되었고, 양평군의 직영 관리를 받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세월 정미소 전경

세월 정미소는 세월리만의 색깔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주민들은 직접 건물 운영 계획을 제안하고 관리 감독하며 마을에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월 정미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세월 1리에서 7명, 세월 2리에서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1달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군에 제안해 추진된다. 하지만 군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직 없어 체계적인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세월 정미소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세월리에는 마을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2020년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었다. 정미소 건물이 준공된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통해 공간 운영과 '달강이야기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이자 마을의 공공 활동을 만들어갈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통해 2020년 8월 달강세월협동조합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기존에 마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던 '세월 행복마을 추진위원회' 8명을 주축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조합원은 14명, 현재는 2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최근 2022년 10월 1일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달인 찾아 떠나는 달강마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투어를 부활시켜 진행하기도 했다.

달강마을에서는 달강세월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세월모꼬지, 마을운영위원회, 예술가 모임, 네트워크 모임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단체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세월모꼬지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학교, 교육, 문화 활동에 앞장서 왔다. 그 밖에도 마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모임,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이 카톡이나 밴드를 활용해 소통하는 네트워크 모임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렇듯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과 적극적인 활동이 달강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여행이 시범 운영에 그친 아쉬움을 달래고 마을을 알릴 기회를 새로 만들고자 2021년 6월 '제8회 전국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에 참가했는데, 여기에서 경기도 최우수상, 전국대회 은상을 수상하며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보답 받았다.



세월모꼬지 연말 전시회



세월모꼬지 달시장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마을

달강세월협동조합이 막 구성되었을 때는 조합원이 많지 않았다. 앞으로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뒤따랐다. 현재 조합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계기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길 원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을을 위한 활동이 있다. 세월 정미소 운영위원회가 기획하는 세월 정미소 프로그램도 달강세월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마을 여행 프로그램도 조금 더 특색있고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한강과 계곡을 따라 위치한 세월리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투어 코스 개발, 마을 달인 프로젝트 보완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활동과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다양한 홍보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세월 계곡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트리하우스, 버섯 농장, 농산물·임산물 생산 가공 판매, 달인들의 상품 중개 판매 등 지역과 달인을 잇고, 마을의 관계를 확장하는 다양한 거리들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달강마을은 주민들 스스로가 달인이 되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며 마을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다.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문화마을로 달강마을을 가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4년간 이어진 달강마을 주민들의 노력은 분명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결실을 통해 양평의 대표적 문화마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산촌 주민들이 접경지역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DMZ편치볼둘레길



- 소재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23
- 단체명 사단법인 디엠지편치볼숲길
- 주요내용 산간 비무장지대(DMZ)라는 지형적 특성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으로 조직된 법인이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 키워드 DMZ, 산림휴양, 민·관 협력

DMZ편치볼둘레길의 탄생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DMZ 접경지역은 채 아물지 못한 역사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양구군은 우리나라 북단의 산간 지역인 탓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까지 더해진다. 이 지역에 살고있는 일부 주민은 아픈 전쟁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삶을 일구어나가고 있다. 양구군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발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인구수가 10년 전부터 2만 3천 명 안팎에 머물러 있다.¹

해안면은 양구군에 다다라서도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30분 넘게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최북단 지역이다. 해안면에 도착하여 DMZ편

1.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치볼둘레길 안내센터에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면 이 지역의 한적한 분위기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안내센터가 위치한 마을을 주변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움푹 들어간 분지 모양의 지형 때문이다. 그 풍경은 비탈지지만 드넓게 펼쳐진 초원에 가까워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준다. 이 분지 지형을 사방으로 가로지른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DMZ편치볼둘레길(이하 편치볼둘레길)은 트래킹 매니아들이 찾는 명소이자 접경지역인 해안면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또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다.



양구군 해안면 편치볼 전경

편치볼둘레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의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안내센터 조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1,291백만 원을 투입하고, 총 73.2km 길이의 4개 코스로 구성된 둘레길을 계획·조성하였다. 둘레길 중 일부 숲길이 남방한계선 철책이 있던 곳을 따라 조성된 것에서 기인하여 ‘DMZ’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둘레길을 산림청이나 인근 군부대 등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해안면 주민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디엠지편치볼둘레길이 설립되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편치볼둘레길을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은 17명이며, 산림청(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및 한국트레킹지원센터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접경지역 둘레길에서 발견하는 역사의 흔적

편치볼둘레길이 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끄는 가장 큰 특징은 접경지역 내의 트래킹 코스를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편치볼둘레길의 코스는 평화의길, 오유발길, 만대벌판길, 먼뿔재길 등 총 4가지로, 코스당 소요 시간은 약 5시간 30분에서 최장 7시간 30분 가량이다. 그중 가장 짧은 시간이 드는 코스이기도 한 평화의길은 안내센터를 출발하여 청룡안, 와우산, 대형병커시설, 동막동마을, 정안사를 거치는 둘레길인데, 이 코스를 오르는 길에 교통호와 병커, 제4땅굴 등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둘레길 북단에 있는 가칠봉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 초소와 북한 초소가 불과 780m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에 편치볼둘레길의 일부 코스는 해당 지역 군부대의 통제 지역에 포함 되어있다.



둘레길 코스 안내도

편치볼둘레길에서만 둘러볼 수 있는 휴전의 흔적을 탐방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적지 않다. 양구군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평화기원 DMZ편치볼둘레길 걷기’와 같이 일반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역사 교육을 겸한 야외활동을 기획하는 중고등학교의 문의도 많다. 편치볼둘레길 운영진은 학교 측과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가 민통선 지역이다 보니 옛그제도 OO학교라고 대안학교에서 평화걷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갔어요. 학교에서 답사를 오더니 아이들에게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4시간 정도의 코스를 짜달라 하더라고요. ... (중략) ... 그리고 여기 땅굴도 있고 을지전망대에 올라가면 북한 초소도 보이고 하니 거기까지 가보고, 학교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퀴즈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진행하고요.”

최창식 사무국장

둘레길 방문객은 방문 3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미리 탐방 예약을 해야 하고 자율탐방이 불가능하다. 코스 일부 구간이 지뢰 구역을 지나고 있으며 인근 군부대의 훈련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한 안내자가 산행에 동행해야 한다. 편치볼둘레길 법인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6명을 채용하여 탐방객들의 안내를 맡기고 있다. 이들 6명은 모두 양구군민이며, 그중에서 3명은 해안면 주민이다. 안전한 탐방을 위한 안내와 즐거운 산행을 위한 각 코스 구간별 소개를 담당하는 숲길등산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였다.

둘레길도 식후경, 지역 재료로 만든 푸짐한 숲밥

편치볼둘레길 탐방의 또 다른 묘미는 숲밥이다. 20명 이상의 단체 탐방객이 사전에 숲밥을 신청하면 둘레길 탐방 코스 중간의 쉬어가는 구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출장 뷔페 형식으로 식사를 마련해주는데 이것이 숲밥이다. 둘레길 운영 초기에는 탐방 시작 시 도시락을 나누어주었다. 하지만 한참 산행을 이어가던 중 식사를 하려니 도시락



이 차게 식거나 상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주민들의 고민 끝에 탐방객들이 휴식을 취할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숲밥을 신청한 탐방객은 시래기,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등 지역에서 자란 나물과 장아찌 반찬이 10여 가지가 넘는 푸짐한 시골밥상을 맛볼 수 있다.



숲밥

편치불둘레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숲밥은 이곳의 주 수입원 중 하나다. 현재 숲밥은 편치불둘레길 법인이 음식 판매 자격을 보유한 해안면 2개 농가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고 있다. 탐방객이 지불하는 1인당 숲밥 식사 비용은 만 원이다. 전체 숲밥 매출액 중에서 5%는 편치불둘레길 법인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온전히 숲밥을 제공한 주민의 수익이다. 물론 숲밥을 원하지 않는 탐방객이라면 지역 내 식당에서 별도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2021년에는 7,713명의 탐방객 중 절반에 가까운 3,251명이 숲밥을 이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숲밥에서 먹은 반찬 또는 특산물이 마음에 든다면 구매할 수 있도록 문익에 따라 지역 내 로컬매장 등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에서 장터를 열기도 한다. 양구군은 시래기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이외에도 사과나 콩, 인삼 또 시래기의 옆그루로 경작할 수 있는 감자도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작물을 접할 수 있다. 일부 방문객은 둘레길보다 숲밥을 더 인상적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주민들은 숲밥을 매개로 지역 농산물을 방문객에게 더 알릴 수 있어, 숲밥은 편치불둘레길 법인뿐 아니라 지역의 입장에서 자랑으로 삼을만한 수익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둘레길 탐방은 못 했는데 그때 숲밥만 먹으면 안 되냐고
 문의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바람 쐬러 와서 숲밥이라도 드시겠다고.
 숲밥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 거기서 이제 연계해서 농산물을 파는 거죠.
 숲밥은 20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딱 20만 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감자 같은 농산물, 즉석에서 팔 수 있는 장아찌 이런걸 파는게
 어떨 때는 숲밥보다 많다는 거지요.”

최창식 사무국장

2022년 둘레길 방문자 및 숲밥 이용자 현황

구분	평화의길	오유발길	만대벌판	면뱃재길	계	숲밥 이용자
3월	8	9	0	0	17	0
4월	45	761	10	18	834	285
5월	95	933	25	78	1,131	564
6월	113	838	50	64	1,065	726
7월	132	482	212	343	1,169	685
8월	271	933	176	132	1,512	742
9월	88	1,099	35	107	1,329	1,096
10월	210	2,214	25	62	2,511	987
11월	41	708	2	13	764	423
누계	1,003	7,977	535	817	10,332	5,508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활발한 민·관 협의체

편치불둘레길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DMZ편치불둘레길 운영·발전 협의회(이하 둘레길 협의회)’라는 명칭의 민·관 협의체의 역할이 크다. 접경지역이자 산간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 민·관 협의체에는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양구군, 육군 부대, 국립DMZ자생식물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해안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연합회장 등 주민 4명을 더해 전체 구성원은 16명에 달한다.

둘레길 협의회는 단순히 명목상의 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활발하게 운영해오면서 각 이해관계자 사이의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군과 산림청의 둘레길을 포함한 접경지역 산림 관리 계획 안에서 민간은 운영 실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며 논의를 하는 방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시 전문가 집단으로써 산림자원 활용과 둘레길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편치불둘레길 운영진과 주민들도 큰 의지를 하고 있다.

실제로 둘레길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의 목소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편치불둘레길 운영 방향에 직접 반영되는데, 이는 민·관 협의체가 둘레길을 지속해서 운영·발전시켜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둘레길 4개 각 코스에 숲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 ‘들마루’ 설치를 건의하여 실제로 조성하였다. 이전에는 숲밥을 도입하고 초창기에는 코스 중간의 임의의 장소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에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편치불둘레길 운영진은 고민 끝에 일정 인원이 앉아서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평평하면서 넓은 지점, 그러면서 숲밥을 배달해오는 차가 올라올 수 있는 지점과 맞닿아있는 장소에 평상과 같은 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협의회에서 건의하였다.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각 코스마다 숲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인 ‘들마루’가 설치되어 탐방객들이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양구군과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이 밖에도 기존 코스의 어느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어느 지점의 어떤 시설물이 특히 안전을 위한

점검이나 보수가 필요한지 등 세부적인 정보를 청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레길 협의회의 기능은 중요하다.



DMZ편치볼둘레길 운영·발전 협의회

역사의 기억을 딛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DMZ편치볼둘레길

DMZ편치볼둘레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운영을 통해 숲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산림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보존성이 높아 산림청이 첫 국가 숲길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편치볼둘레길과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계기로 둘레길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코로나19로 인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방문객 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양구군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찾아오기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접경지역의 둘레길 코스와 지역 농산물로 풍성하게 채운 숲밥은 트래킹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편치볼둘레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숲밥을 브랜드화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있고, 비슷한 유형의 둘레길을 운영하는 타 지역



에서도 벤치마킹하고자 할 정도로 특색이 있는 아이템이만큼, 숲밥을 브랜드화하자
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둘레길 위원회와 같은 자리에서 지자체의 권유와
전문가들의 자문 지원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주말과 같이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를 대비
하여서라도, 보다 대량으로 숲밥을 만들기 위한 공동조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도 있다. 현재는 2곳의 농가로부터 숲밥을 공급받는 물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조
리실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메뉴 개발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해보자는
이야기다.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지만, 펀치볼둘레길 운영진은 이것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인 만큼 공간 마련이나 인력 총원의 문제뿐 아니라 위생이나 제
도적인 문제들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선부르게 운영
범위를 확대하다가 도리어 실패를 경험한 사업체들을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나 안전 문제가 중요한 특수 지역인만큼,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방문객 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군,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시켜나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펀치볼둘레길의 매출 구조 등 성과 지표에 대한 면밀한 체계를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둘레길 협의회에서 명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
업 실적은 방문객 수와 숲밥 판매에 대한 매출액 정도다. 둘레길 탐방과 숲밥 이용을 매
개로 연결되는 로컬 특산물 판매, 반찬 판매 등 마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에 대
한 통계는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펀치볼둘레길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단순한 방문자 통계나 숲밥 판매액 외의 둘레길 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둘레
길 탐방객을 응답자로 설정하여 각 탐방 코스, 이용 시간, 지출 금액, 만족도 등을 측정
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해안면을 둘러싸고 있는 펀치볼 지형의 커다란 산줄기만큼, 전쟁 후 반세기를 훌쩍 넘
기며 느릿느릿 켜켜이 쌓아온 기억만큼, 주민들은 서두르지 않고 펀치볼둘레길을 가꾸
어나갈 계획이다. 한반도 안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인만큼 지자체와 전문가
가 주민들의 고민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주고 있기에, 지나온 10여 년보다 앞으로의 발전
이 더욱 기대되는 펀치볼둘레길로 많은 이들의 꾸준한 발걸음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10년 후에도 행복한 합천, 마을지기목공소



-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 단체명 합천 마을지기목공소 사회적협동조합
- 주요내용 목공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 키워드 유희공간, 목공소, 지역생활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지기목공소 시작

경상남도 합천군의 합천읍은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약 36.1% 분포하고 있는 농촌 지역이다. 고령인구와 차상위계층이 많이 분포하는 농촌일수록 신체적 금전적 한계에 따른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가 어려워 정주 여건에 대한 질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합천군은 경상남도 시·군 중 문화와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이다. 합천군 내 합천읍에 대부분의 문화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지리적인 문제로 합천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합천군민들의 문화 복지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4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문화 복지시설이 밀접해 있는 합천읍이 선정되었다.

마을지기목공소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복합희망센터와 같이 조성된 주민단체이며, 2017년 12월에 합천읍사무소 차고로 사용하던 유휴공간을 목공소로 재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 약 2년간 군에서 진행하는 목공소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총 39명 중 9명의 목공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9인의 목공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마을지기목공소는 경상남도 합천군 지역 내 고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포가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도 목공기술을 활용하여 집수리 및 보수, 목공 가구와 목공예품 무상 제공과 저렴한 판매, 목공전문가 양성을 위한 목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지기목공소의 슬로건은 ‘10년 후에도 행복한 합천을 만들자’이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 공간 개선과 목공교육을 통해 도시적 편익과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현재, 합천마을지기목공소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지기목공소)은 합천리 지역 주민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목공전문가뿐만 아니라 목공지도사, 실용인두화(우드버닝) 공예 전문가 등이 소속되어 있다. 마을지기목공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종욱 이사장 중심으로 재무 및 총무 업무와 마케팅 관리 그리고 지역봉사 활성화를 담당하는 관리팀(팀장: 김성욱), 대외협력업무와 기획 및 교육 총괄을 담당하는 대외협력팀(팀장: 최창열), 공공사업관리와 제품기획 및 일반시장개발을 담당하는 사업팀(팀장: 전상직), 목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팀(팀장: 이광수)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시와 비교하여 주택의 유지와 보수가 어려운 농촌일수록 목공기술은 필수이고 그중에서도 고령인구 차상위계층이 많은 농촌일수록 목공기술은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마을지기목공소 최종욱 이사장



마을지기 목공소 외관



목공교육

마을지기목공소의 끊임없는 노력

마을지기목공소는 한정된 지역 내 주민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들에게 양적·질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지역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지역 간 상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실용적인 가구 제작에 만족하지 않고 우드아트버닝을 접목하여 목공기술의 수준을 발전시켰다. 우드아트버닝을 접목한 마을지기목공소의 목공 제품은 상품성과 인지도가 증가하였다. 목공소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각종 전시 및 문화 행사 개최와 판매, 수익금 불우이웃 기부 활동, 우드아트버닝 교육강좌 개설 등 주민들에게 질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을지기목공소는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선 귀농·귀촌인 정착과 인접 지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마을지기목공소는 지역 내 집 보수가 필요한 귀촌인들을 파악하고 방문하여 무상 수리, 자녀들을 위한 소형 목조 주택을 제작해주면서 귀촌인들의 정주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주택 보수 사업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구를 위한 경사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드트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드트럭은 푸드트럭과 같이 목공 장비와 목공기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트럭으로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마을학교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마을지기목공소 향후 계획

마을지기목공소의 향후 계획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서비스 전달의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을지기목공소는 생활서비스 전략과 수익 창출 전략을 설정하였다.

생활서비스 전략은 목공예 우드버닝 관련 인력양성 및 체험 등을 통한 문화예술기능을 강화하는 문화서비스 전략, 집수리 봉사단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택서비스 전략, 목공예 및 우드버닝 관련 인력과 연계한 공공시설물 제작으로 지역성을 강화하는 복지서비스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창출전략은 인접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마을지기목공소 분점 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및 체험 등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마을지기목공소 제품 판매와 교육의 선순환 운영구조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두 가지 전략에 따른 세부적인 목표는 관내 서비스 영역을 점증적으로 확대하여 도·농간 또는 인근 지역 간의 교류, 전문교육과 가구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귀농 귀촌인을 위한 목재 주택을 제작하여 합천군 지역에 귀농 귀촌인 유입 증가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 주택 보수를 희망하는 인원 증가에 따른 대기 인원이 증가하고, 교육장

공간이 협소할 정도로 마을지기목공소는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작품전시의 폭을 확대하고 교육 수강 프로그램을 보다 수월하게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생활지원서비스 혜택을 확장하고자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서비스 거점 조성사업)에 공모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노후화된 목공소와 장비(집진시설)를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점

일자리, 소득뿐만 아니라 정주 환경 또한 인간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삶의 만족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불안정한 소득, 빈집과 노후화된 주거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은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 인구, 낮은 소득과 일자리,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은 농촌 지역의 쇠퇴로 이어진다.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선 산업과 일자리, 생활환경, 문화·복지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을지기목공소는 단순히 목공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들의 생활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닌 목공교육을 접목하여 일자리 창출, 인근 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포괄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증가한다면 농촌의 정주권 개발과 귀농·귀촌자 유입 그리고 지역자원에 기초한 다양한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 감소하고 있는 농촌 주민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농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세화마을협동조합 & 질그랭이거점센터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평항로 46-9
- 단체명 세화마을협동조합&질그랭이거점센터
- 주요내용 청장년층의 이탈과 고령화, 이주민의 유입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주민 477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한 질그랭이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카페, 베이커리, 공유오피스, 숙박서비스, 로컬푸드 유통사업과 마을관광(해녀관광, 오름관광)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
- 키워드 마을관광, 워크ेशन, 유희공간 활용

마을의 희망은 주민

제주 동쪽 구좌읍, 천년의 숲으로 널리 알려진 비자림 옆 다랑쉬 오름이 있다.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이 오름부터 해안가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나무숲 일대에 마을이 형성됐는데,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돼 ‘가는꽃’이라 이름 붙여졌다. ‘가는꽃’이란, 제주도 방언으로 가늘게 형성된 숲이라는 뜻이며, 숲을 의미하는 ‘꽃’이 훗날 ‘곶’으로 미화되어 ‘세화(細花)’로 불리게 됐다는 유래가 있다. 그 이름처럼 세화마을에는 아름다움이 넘친다. 따사로운 햇살에 비쳐 윤슬이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세화 해변과 달의 풍경이 특히 아름다워 월랑봉이라 불리는 오름의 여왕 다랑쉬 오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세화리를 지켜온 해녀삼촌¹들의 아름다

1. ‘삼촌’은 성별을 불문하고 어른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의 제주도 방언이다.

운 미소까지. 그러나 여느 농어촌이 그렇듯 마을을 떠나가는 청장년층과 남은 주민들의 고령화, 이주민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시들어갔다.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도 날로 약해졌고, 마을 일에 대한 주민참여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너가 아닌 우리,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됐다. 깊은 고민 끝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다시금 사람 냄새가 물씬 나고 정이 넘치는 세화마을을 만들자는데 마을주민 477명이 뜻을 모았고, 2019년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세화마을협동조합은 마을협동조합 중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 조합 구성 당시의 477명이란 숫자는 결코 쉬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motto 아래, 되도록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 처음 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나서도 마을 자치 규약을 재정비하고 정관을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마음 맞는 몇 명에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 한계가 분명했기에 최대한 많은 마을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법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얻고,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수렴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오래도록 함께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켜켜이 쌓아 만들어진 세화마을협동조합의 비전은 크게 세 가지다. 함께 일하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뿌리내리기', 함께 누리는 세화 일상으로 '꽃피우기', 함께 꿈꾸는 더 큰 행복 '퍼트리기' 등 세화마을 주민의 행복씨앗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화마을협동조합은 체험관광서비스 제공, 홍보마케팅, 협력네트워크 구축, 조합원 교육, 주민문화복지 향상, 지역상품판매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화마을 주민들의 행복텃밭, '질그랭이거점센터'



질그랭이센터 카페477+

세화마을협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질그랭이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조합 설립 당시의 477명보다 증가한 494명의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사업을 시작하였고,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86억 원을 확보해 옛 마을 예식장으로 쓰였던 버려진 건물을 세화리 종합복지타운으로 리모델링했다. '질그랭이'라는 이름은 제주 사투리로서 지긋이 오래 머물다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센터의 브랜드로 결정했다. 세화마을협동조합은 무엇하나 쉬이, 선부르게 진행하는 법이 없는데, 질그랭이센터를 만드는 일 또한 그 이름처럼 지긋이 오랜 기간이 걸렸다. 2020년 1월 코로나19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으나 공사 초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고, 마을주민 모두가 다시 모여 6개월간 회의를 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다시 디자인 공사를 실시하여 세화마을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가득 깃든 '질그랭이센터'가 탄생했다.

질그랭이센터의 1층에는 마을리사무소, 마을협동조합 사무실, 구좌주민여행사 사무실이 있다.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의 상호교류를 책임지는 이곳에서는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화마을 풍경을 그린 그림을 센터에 전시하기도 하고, 커피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화마을 예비 바리스타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그중 우수한 교육생은 질그랭이센터 카페의 바리스타로 채용되기도 했다. 또 구좌읍 로컬푸드를 활용한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양성과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개발된 메뉴를 질그랭이센터 내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다. 2층은 최초 세화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할 당시 조합원으로 참여한 477명을 의미하는 'CAFE477+'라는 카페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구좌의 특산품인 당근을 활용한 당근주스와 케이크, 백향과, 풋굴, 땃유자, 꿀을 활용한 음료와 잼, 감자빵 등 다양한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카페 한켠에 '제로 웨이스트' 상품 공간을 마련해 친환경 제품, 리필제품 등을 판매한다.



'제로 웨이스트' 지구별가게

3층에 자리 잡은 공유오피스는 만 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데, 지역 청년들이나 개인사업자는 카페 음료 구매 시 대여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디지털노마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와 더불어 4층은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워크케이션'²⁾이라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객실명 또한 제주에서의 설렘과 몸과 마음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늑하다는 의미를 가진 '아도룩한', 두근두근을 뜻하는 '돌랑돌랑', 반짝반짝하다는 '펄롱펄롱', 기뻐하다는

2. 워크케이션은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로, 사무실이라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관광지에서 일을 하고, 업무 시간 이후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의미한다.



의미의 '지꺼진'으로 이름 지었다. 주중·주말·성수기에 관계없이 1인실은 5만 원, 최대 7명이 사용할 수 있는 다인실은 17만 원으로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숙박 공간 및 공용시설

일하고 놀며 지그시 머물다, 세화마을 워케이션

질그랭이거점센터의 워케이션은 창밖으로 펼쳐진 세화 해변의 풍경을 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제주에서의 관광,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원격근무나 워케이션 등 혁신적인 근무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5월부터 세화마을 협동조합은 티몬, 네이버, 한국전력 등의 기업들과 연계한 워케이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정석과 세미나실 대관(1시간), 카페 이용 쿠폰 외 식사 및 숙소 비용을 합치면 1인 4박 5일 기준 약 80여만 원이 마을에서 소비되는데, 20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1주일간 마을에서 소비되는 비용은 약 1,6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질그랭이 센터는 마을주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숙박과 오피스, 로컬푸드 체험과 마을 투어, 카쉐어링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세화 마을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워케이션 사무공간

또한,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구좌주민여행사’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여행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제주관광공사에서 삼촌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로컬여행을 기획하는 삼촌PD를 선발했고, 그중 양근모PD가 구좌읍 세화마을에 들어오면서 부지성 이장과 함께 주민여행사 설립에 참여하게 됐다. 지역 체류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화 야밤투어, 해녀투어, 발담투어, 오름투어, 마을투어, 불턱투어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 ‘해녀여행’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녀와 함께하는 퀴즈쇼, 해녀탈의장 체험, 세화 해물라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마을 탐방, 건강체조, 다량쉬 둘레길 탐방(자연해설사), 숲속 다도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제주 테크노파크의 트래블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박스트리 전자스탬프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전자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



17곳을 관광하면서 스탬프를 찍는 스마트관광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휴대폰을 활용해 식당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카페 할인 쿠폰을, 카페에 가서 스탬프를 찍으면 소품샵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좌주민여행사



세화마을스탬프투어

세화마을협동조합의 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

세화마을협동조합은 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지원사업에 도전했다. 그 결과, 삼촌마을만들기프로젝트, 구좌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스마트빌리지, 어촌뉴딜 300, JTP오마이굿제주, 트레블테크, 도시재생예비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질그랭이센터가 건립되고 운영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현재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정규직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자리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세화마을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494명으로, 그중 이사 12명, 감사 2명, 대의원 8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화마을협동조합 활동의 주축이 되는 질그랭이센터는 센터장과 PD, 이장, 카페 실장, 정규직 지역 청년 2명과 베이커리 팀장 1명, 숙박관리 1명으로 운영된다. 농어촌 휴양마을, 웰니스 관광지, 카름스테이³를 운영하고 있는 세화마을협동조합은 2020년 사업 첫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억여 원의 적자를 봤지

3. 카름스테이는 제주의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 '카름'과 영단어 'STAY'를 결합한 것으로 제주관광공사의 제주 마을 여행 통합 브랜드로서 제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만,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 기준 약 2억여 원의 순이익을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 또한 늘고 있고, 세화마을협동조합 또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생력을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 중이다. 향후 ‘마을중심공간’, ‘농업생산공간’, ‘생태환경공간’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단계인 ‘마을중심공간’은 질그랭이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촌공동체사업, 두 번째 단계인 ‘농업생산공간’은 질그랭이거점센터와 해양체험이 결합된 농어촌공동체사업이다. 마지막 단계 ‘생태환경공간’은 주거상권과 농업 및 오름 활용 사업을 통해 2022년 이후 도시재생뉴딜지구 조성 및 농산물 융복합산업지구, 오름휴양치유밸리 조성으로 농산어촌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그 래왔듯이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한 단계, 한 단계 잘 헤쳐나갈 세화마을협동조합의 발 걸음을 응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제주 세화마을에 지그시 머물다 가길 바라본다.





자연과 더불어 사람을 부르는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곶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77
- 단체명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곶
- 주요내용 마을의 자연 자원인 동백동산 꽃자왈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주민 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최근에는 초등학교와 연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폐교 위기를 극복
- 키워드 생태관광, 생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관광 1번지 제주 선흘곶자왈

생태관광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생태관광개념이 논의된 건 1990년대 초이지만 2002년 제주도에서 열린 생태관광포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주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제주 생태관광 육성 위원회, 제주 생태관광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태관광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는 생태관광의 시작점이자 메카로써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꽃자왈이라는 천혜의 생태자원이 있다. 꽃자왈은 '곶'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과 '자왈'의 합성어로 된 고유 제주어로서, 곳은 숲을 뜻하며,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켜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의미한다. 곳자왈 내 용암이 만들어진 요철 지형은 지하수 함양은 물론 다양한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을 이루어,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²

살고 있는 제주 조천읍 선흘1리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북 방향의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마을이다. 선흘의 '흘'은 깊은 숲을 의미하며 이 숲이 바로 동백동산이라는 숲이다. 동백동산은 약 10만 그루의 동백나무와 더불어 후박나무, 종가시나무 등의 난대성 수종이 가득한 650년 역사를 품은 원시림이다. 1971년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 동백동산의 숲과 습지는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곳이었다. 물을 길고, 빨래를 하고, 말과 소를 기르고, 겨울에는 딸감과 솥을 제공받는 삶의 터전이었다. 제주 4.3사건 당시에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준 피신처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주민들이 이 숲을 아끼고 가꾸은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동백동산 곳자왈은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람사르보호습지로 지정되었다. 이때부터 동백동산 습지는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곳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된다.



동백동산 숲길

2. 네이버 지식사전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의 시작

2011년 람사르 보호 습지 지정 이후 주민들은 어떻게 동백동산을 잘 보전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생태관광을 해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선홍리 생태관광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생태관광을 시작하였다. 마을회관에서 3~4년간 주민협의체를 꾸려 생태관광을 운영하면서 점차 사업의 몸집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제대로 된 별도 사업단을 꾸리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홍리 마을 주민들은 2015년 11월 1차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민 회의를 열었다. 수차례 난상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여러 의견이 오갔고, 전문가들로부터 마을사업 전후 마을공동체 분열과 갈등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마을의 발전 방향과 동백동산 보전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고민한 결과, 2016년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자고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3년간 20명의 발기인이 모여 전문가들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주민들과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나긴 주민 합의 과정을 거쳐 2018년 2월 환경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이하 선홍꽃)'이 최종 인가를 받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다른 협동조합과는 달리 배당이 없다. 다시 말해 개인이 출자를 얼마를 하더라도 보상은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선홍리 마을 주민의 80~90%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자는데 흔쾌히 동의했다. 초창기 98명으로 시작한 선홍꽃은 현재 200명가량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 구좌당 만 원씩, 최소 스무 구좌 이상 출자하면 누구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민뿐 아니라 동백동산을 보전하려는 사회적인 가치에 동의한 외지인들도 약 10%가량 포함되어 있다. 선홍꽃의 최우선 목표는 동백동산 곳자왈의 보전이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20만 원이라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큰돈일 수 있어요. 근데 원탁회의 때 한 어르신이 일어나셔서 ‘마을에 사업을 한다고 하고, 동백동산을 보전한다는데, 그리고 미래 세대 내 후손들이 이 자연을 고스란히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데 내가 그 정도는 부조한 셈 치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급물살을 탈 수 있었어요.”

김호선 팀장 인터뷰 중

선هل곳은 생태관광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생김 수익의 70% 이상을 마을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고풍 주민들의 복지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일 챙겨드리기다. 오랜 기간 마을잔치 형태로 진행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수익이 줄어들어 지금은 쌀 한 포대씩 전해드리는 행사로 대체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혜택을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에게는 누구든지 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동백동산을 가꾸어 오셨고 언제든지 마을을 위해 힘을 써주시고 도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원탁회의



물과 숲을 느끼는 생태교육프로그램

선홍곶은 주 사업으로 동백동산 보전, 생태관광, 주민복지,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관리·운영, 마을공동체 생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태관광 기획 및 운영 총괄, 습지센터 운영, 마을삼촌 해설사 관리, 동백동산 생태 모니터링과 보전, 생태·문화자원 발굴과 책자 제작 등에 3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동백동산 입구에 '동백동산습지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이곳을 거점 삼아 대부분 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총 12명으로 협동조합에서 고용한 자체 해설사를 포함해 습지보호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원받는 자연환경 해설사 등 해설사 9명, 사무국 운영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선홍곶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뭐니 뭐니 해도 꽃자왈을 이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2011년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2년간 주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때 동백동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성인, 가족,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발달해 있어 꾸준히 그들로부터 모니터링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있다. 선홍곶은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계획할 당시 다음과 같은 8가지 원칙을 세웠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1. 수익의 대부분(약 70%)이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설계한다.
2. 운영은 기획비와 진행비로 운영한다.
3. 취약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수익의 일부(10%)는 환경보전 기금으로 환원한다.
5.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을 안길을 걷는 것은 최소화한다.
6. 최소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7.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행복을 지향한다.
8. 사전답사와 답사 후 피드백은 필수로 진행한다.

선홍곶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체류프로그램인 '다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상시 예약프로그램인 '놀면서 배우는 역사 빙고', '먼물깍습지! 생명을 쿨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는 제주의 마을길을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돌아보고, 제주 자연을 대표하는 곳자왈, 돌, 해변을 들여다보는 캠핑형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1박 2일로 진행된다. 선흘, 함덕 북촌 마을이 연계되어 있다.

놀면서 배우는 역사 빙고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와 자연이 주는 놀라움을 제주어 빙고(bingo) 놀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삼촌 해설사와 함께 걷고(go), 그리고(go), 찍고(go)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먼물각습지! 생명을 쿡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의 '먼물'과 꼬트머리라는 의미의 '각'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먼물각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보드게임을 통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먼물각 습지

학교와 같이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관광을 시작하고 이듬해인 2014년, 교육청에서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을 건강생태학교로 지정³하였다. 선흘1리에 위치한 선흘분교장은 2014년 전교생이 20명까지 줄어들어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였다. 동백동산을 기반으로 건강생태교육을 특화하여 도시지역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마을과 학교 협의를 거쳐 선흘분교를 건강생태학교로 지정한 것이다.

선흘분교가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되자 학교는 선흘곳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선흘곳 또한 지역이 살아나려면 학교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들과 여러 번의 회의와 워크숍을 거쳐 1~6학년까지 참여 가능한 생태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초기에는 방과 후 수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학년별로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흘곳에서 매년 연초에 커리큘럼을 기

3. 건강생태학교는 “제주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생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가꾸는 제주형 혁신학교”를 의미한다.

확하고 생태교육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선흥분교의 생태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나자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지금은 학생 수 100명 남짓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분교에서 선흥초로 본교 승격까지 했다. 인근에 타운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정주 인구가 늘어난 것도 학교를 살리는 데 큰 몫을 했다. 타운하우스 입주 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순위를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교생 98명 중 3명을 제외하면 전부 새로 이주해온 가정의 자녀들이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약 10회 정도 관련 생태 수업을 진행하는데, 초기에는 활동비 없이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일부 강사비를 지원받는다.

*“애들이 이 수업만 기다린대요.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나와 숲에 들어가서
뭔가 관찰하고 재미있게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학부모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아요.”*

김호선 팀장 인터뷰 중

2020년부터는 또 다른 제주도 공모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민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같이 요리하고 식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2회, 작년에는 6개월간 9~10회 정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명은 ‘뽕꼬랭이 요리학교’로 지었는데 뽕꼬랭이는 제주방언으로 ‘배부르게’라는 뜻이다.

미리 섭외한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 20~4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같이 지역 농산물로 요리를 한다. 지역에 농가 체험도 병행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밭에 가서 같이 농산물도 수확해보고 이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소일거리와 보람을, 아이들에게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중함과 마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생태교육 뽕꼬랭이

자연과 더불어 사람을 부르는 마을

선홍곶도 코로나19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20년에는 20건 이상 예약되어 있던 단체 체험이 전부 취소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선홍곶은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해설사 등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은 가능했지만 수익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실제 코로나 이전 1억 원이 넘는 매출이 코로나 이후 3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주민복지로 돌아가는 재원도 줄어드는 아쉬움으로 이어졌다. 코로나 이전에 진행하던 주민 대상 실버 프로그램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그래도 올해는 자율 탐방이나 일부 체험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약이 늘어나고 있어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기준 탐방객

이 5만 2천 명이었다면 올해는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본다. 동백동산이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개별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개별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선홍곶은 앞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같이 식품 제조가공업과 외식업까지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는 체험시설이라 농산물을 활용한 다른 소득사업을 시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마을 내 공동 가공시설을 만들어 도토리 가루 등 주민들이 생산, 가공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생각이다. 생태관광 쪽으로는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제주 '카름스테이'라는 통합 브랜드에 참여하여 홍보를 보다 강화할 생각이다.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 10년 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주민들과 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을 품는 주민들도 더러 있었다. 특히 3년 주기로 이장이 바뀌면서 같이 논의해오던 개발위원회 구성이 바뀔 때마다 협동조합과 사업 운영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가장 큰 숙제였다. 그럴 때마다 선홍곶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원탁회의 때 청년, 학생, 이주민 등 마을과 관련한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배려했고, 코로나 기간에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마을의 문제를 투명하게 공론화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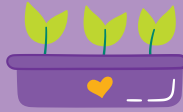
얼마 전 선홍1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선홍2리에서 축구장 10배 크기의 꽃자왈이 훼손된 것이 큰 이슈가 되었다. 땅값 상승을 노린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자연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만큼이나 마을공동체의 신뢰와 소통의 가치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선홍곶은 끈끈한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느리지만 확실한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자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누군가 그곳에 관심을 갖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홍곶이 작은 학교 살리기와 생태교육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홍곶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의 공동체와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온전히 넘겨주는 것이다. 향후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을 토대로 동백동산이 아름답게 보전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V

CHAPTER

다시 찾아간
농촌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 경기 양평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사업

• 충남 금산

금산문화의집

• 전남 강진

강진 푸소(FU-SO)

• 제주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코로나19를 넘어 변함없이,

양평군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3
- 단체명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 주요내용 지역사회에 수요 맞춤형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모델 구축·운영
- 키워드 찾아가는 서비스, 보건·복지,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2016년
우수사례

이웃이 불편하면 복지가 찾아와요: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 양평군은 2013년 ‘행복돌봄과’를 신설하고, 이후 농촌 지역의 수요에 맞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2015년 시작된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舊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 달리는행복나눔이웃들 사업은 지역돌봄과(舊 행복돌봄과) 내 설치한 무한돌봄센터가 지역사회 내 15개 보건·복지 기관, 단체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농촌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생활, 안전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제공하였다.

-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단위 마을을 선정하여 주 2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찾아가 16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84개 마을을 방문하여 3,016명이 달리는행복나눔이웃들 사업을 통해 건강 검진을 받았다. 이 중 유소견자 616명은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에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달리기 시작한 달행이와 그 이후 양평

양평군은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이하 달행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평소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심지까지 나와야 했던 면 지역 배후 마을 주민의 호응이 이어졌다. 달행이 사업 2년차인 지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수사례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약 6년이 지난 지금 양평군의 행복나눔 이웃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을지, 다시 한 번 찾아가 보았다.

양평군의 의료기관 수는 지난 2016년 104개소에서 2020년 114개소로 5년 사이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중심지인 양평읍에 집중되어있어, 강상면, 단월면 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여전히 존재하며, 강하면, 개군면 등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한 군데에 그치는 지역도 있다. 양평군이 양평읍 등 총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의료기관이 2개소 이하인 지역이 6곳이다.¹ 그 사이 양평군의 인구는 50,544명에서 57,675명으로 늘었다. 의료기관 수와 인구수의 증가율을 단순히 비교해보면 증가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지역의 고령화율이 21.2%에서 25.7%로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² 의료 및 복지서비스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 양평군. 「양평군 통계연보」, 2021.
2. 2의 출처와 같음.



달행이, 코로나19를 만난다

달행이 사업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은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로 명칭을 바꾸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도움의 손길을 나눈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 사이 군수가 두 번이나 바뀌었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달행이 사업은 양평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다.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을 통해 5년간 연간 2천 5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료비와 건강 검진비, 자원봉사자의 활동비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 농촌재능나눔 사업에 대한 우수 기관 평가 2회, 장관상 1회를 수상하며 지역 사회의 호응과 함께 모범적인 사업으로서 인정받았다.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 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³에 선정되어 국비와 군비를 지원받았으며, 사업이 종료된 2021년과 2022년에도 군비를 통해 달행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달행이 프로그램 진행

3.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연계 모델 개발·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읍·면·동 중심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②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 조직을 육성하고 읍·면·동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거나, ③주민자치 역량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를 지원한다.

그러던 중 2020년에 닥친 코로나19는 달행이 사업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했다.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심사업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하여 집합 시설 운영이 중단되자 찾아갈 곳을 잃은 것이다. 사회적 접촉이 단절되고 여가를 보낼 장소가 사라진 어르신들이 겪는 코로나블루가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이슈로 등장하고, 양평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고심하였다.

양평군이 내놓은 답은 비대면 복지꾸러미 전달사업이었다.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가 담긴 안내서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긴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구급용품, 각종 복지 또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기관별 홍보물 등을 꾸러미로 만들고, 마을의 리더 격인 복지이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주 2회 마을로 세탁 차량이 방문하는 이동세탁서비스는 계속 운행하였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인 주민이 대면할 수는 없지만,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면 사업은 기존에 무한돌봄센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 기관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방문하였을 때보다 효과가 떨어졌다. 이후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완화되며 마을회관 이용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무한돌봄센터는 비대면 사업을 일부 개선하여, 각 마을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화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였다. 전염병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에 이전과 같이 연계 기관을 포함한 많은 인원이 마을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각 마을회관에 태블릿PC를 보급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마을 주민에게 화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약이나 생활 의료 문제 등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보급된 태블릿PC를 통해 관련 기관의 직원과 1:1로 상담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비대면 꾸러미 사업과 화상 상담 서비스는 2022년 6월까지 지속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달행이가 중단되지 않고 오랜 기간 꾸준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성실하게 이루어졌던 사업 관리가 있다. 매해 사업추진 사항을 빠짐없이 평가하여 다양하게 추진된 사업 중 그해에 특히 잘 이루어졌던 사업, 보완이 필요한 사업, 각 참여단체 및 기관에 대한 효과, 사업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차곡차곡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도 사업의 긍정적 성과뿐 아니라 내·외부적 요인으로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까지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했던 노력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달행이, 코로나19를 넘어 다시 달리다

코로나19를 만나 잠시 움크려있던 달행이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것은 2022년 5월부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이전보다 한층 더 완화되고 대면 활동의 분위기가 살아나자 기존과 같은 마을 순회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 것이다.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 노인복지관, 종합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양평군 지역돌봄과, 세무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각 읍·면 복지팀 등 14개 보건·의료 복지기관이 참여한다.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는 만큼 생계, 주거, 경제, 일상생활 등 배후지역 주민이 겪을 수 있는 폭넓은 문제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달행이를 통해 제공되

는 주요 서비스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달행이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 세탁 차량인 '온정나눔 세탁소'는 달행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치매 조기 발견,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통합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6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 예방 교육도 제공한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치료를 돕는다. 이를 위한 교육, 상담,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대여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달행이를 통해 마을 방문 시 보조기기 세척 서비스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과 세정팀 각종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배후 지역 주민, 특히 고령자에게는 지방세, 보조세 고지서 납부 방법 등 납세 정보에도 취약하다. 이들에게 각종 세금 관련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달행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지역 내 맞춤형 복지 대상자에게 복지 급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가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이 올바른 시기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달행이를 통해 마을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 측정과 건강관리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평군 가족센터 가족의 유형별로 흩어져 제공되었던 기존의 가족 서비스를 가족 유형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달행이에서는 주로 마을 내 독거 어르신들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증 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무기력감이나 우울증을 느끼는 마을 주민, 어르신은 달행이를 통해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4.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양평군 노인복지관 어르신 맞춤 돌봄과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달행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재활,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달행이를 통해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일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전문기관으로 달행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식사를 제공하는 ‘달리는 짜장차’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보조기기 세척 및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온정나눔 세탁소’

달행이의 두 다리, 짜장차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무한돌봄센터에서 달행이의 특화 사업으로 꼽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방문 식사 제공 사업 ‘달리는 짜장차’다. 이미 201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피좋은이웃들’이라는 자원봉사단체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통해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한 주민들로 결성되어 봉사 활동으로 공동체적인 선순환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조 모임 역시 무한돌봄센터의 복지 사업 중 하나인 ‘알코올 치유 캠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로 찾아가는 ‘달리는 짜장차’는 지역 내 고령 및 장애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짜장면을 제공하는 식사 제공 차량이다. 짜장면은 다른 외식 메뉴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인 애뜻함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다. 어렸을 적 운동회나 졸업식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먹었던 추억으로 상징되는 음식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달행이에서 짜장차를 운행하며 짜장면을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채워주는 의미가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짜장면을 개별포장하여 마을복지리더를 통해 각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호응을 얻었다.

짜장차와 함께 연계되는 ‘달고나(달려가 고치고 나누는 행복나눔사업)’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불 세탁, 복지 상담 등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마을의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식사, 주거, 생활 서비스를 짜장차, 달고나를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셈이다. 이러한 무한돌봄센터의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은 2021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코로나19 기간 달리는 짜장차

도움이 필요한 모든 마을 구석구석 닿을 때까지, 달행이는 달린다

올해 달행이는 매주 수요일 오전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대면 방문 프로그램이 재개된 이후 5개월간 20여 마을을 방문하였다. 서비스가 필요한 마을의 이장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무한돌봄센터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군에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마을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먼저 연락을 취하고 방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가급적 이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마을을 최우선으로 방문하고 있다.

양평군에서 취약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달행이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비스 연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행복나눔 PLUS’ 사업과의 연계가 대표적이다.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특히 어르신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에 집중한다.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원활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양, 정서, 주거, 청결 등 영역별 서비스를 구축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읍·면별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활 물품을 사전 조사하여 맞춤형 장보기나 안부 확인, 말벗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달행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은 결국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타부처인 통합돌봄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방향은 일치하면서도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 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통합돌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들, 예를 들어 기존에 달행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던 어르신에 대한 기초건강관리나 정신건강관리, 마사지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달행이 접수리 서비스에서 보일러 교체나 소규모 수리를 주로 수행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는 실내의 무장애 지향 시설인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는 등 상호보완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의 달리는 행복나눔이웃들 사업은 지자체의 복지 정책 모델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현재 지역 내에서 갖춘 자원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랜 기간 꾸준하게 지역의 역할 정책으로 지켜오면서 향후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달행이가 꿈꾸는 것처럼, 온 마을에 달행이의 발길이 닿고 구석구석 복지서비스의 온기를 퍼뜨리며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1000-1200)	10. 5.(수)	10. 12.(수)	10. 19.(수)	10. 26.(수)
	읍천면 읍천2리 (사나사길 122)	개군면 사면리 (주유로 187)	시종면 군04리 (북한강로 952-2)	양동면 석곡1리 (장동로 1609)
1.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행지사 (건강보험기보요양보험 상담 및 홍보)		✓		✓
2. 양평군가족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		✓
3. 양평군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		✓	
4. 양평군노인복지관 (노인상담 및 홍보)	✓	✓	✓	✓
5.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상담)	✓		✓	
6.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조기기 제작)	✓		✓	
7.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푸드트럭: 차량)	✓	✓	✓	✓
8.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 송달샘 (푸드트럭: 분식)				
9.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센터) (두울중점사)	✓		✓	
10.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인지신발견사 및 상담)	✓	✓	✓	✓
11.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영팀 (기초건강체크 및 교육)		✓		✓
12.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기초건강체크 및 교육)				
13. 양평군 새마을 새정당 (새마을상담)				
14. 개인봉사자 신성개념 (한미사자)	✓	✓	✓	✓
15. 읍면사무소 복지팀 (복지상담 및 서비스 안내)	✓ (읍천면)	✓ (개군면)	✓ (시종면)	✓ (양동면)
16. 양평군무한돌봄센터 (느티나무이웃봉사)	✓	✓	✓	✓
17. 양평군무한돌봄센터 (이웃세탁)	✓	✓	✓	✓

달행이 방문 일정표



주민의 생활문화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문화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금산문화의집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 4길 17 금산문화의집
- 단체명 금산문화의집
- 주요내용 주민들이 직접 문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으로써 농촌주민의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
- 키워드 생활문화, 문화플랫폼,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 주민 조직

2017년
우수사례

생활문화를 디자인하다, 금산문화의집

- 2000년에 개관한 ‘금산문화의집’은 금산군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외를 완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2015년부터 ‘금산어깨동무생활문화센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 주민 주도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삼십여 동아리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금산군 내의 문화단체 네트워크인 ‘문화공동체 어깨동무’를 결성하여 다양한 지역 행사를 개최하였다.

- 다양한 공모사업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소득 활동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금산군 지역 특성화 창업 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아토피 치료 및 생태 교육 지도사를 육성하고, 마을 학교 사업을 연계하여 이들이 마을 학교에 찾아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종합대학 사업을 끌어와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여 7개의 커피 동아리가 육성되었으며 이들 중 실제로 카페를 창업한 동아리도 있다.
-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컬푸드 판매 행사에서 공연을 개최하거나, 소외된 면 지역에 찾아가 공연을 개최하고 면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금산군 주민의 생활문화 증진을 위한 끝없는 여정, 금산문화의집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에서 소개되었던 ‘금산문화의집’은 농촌 주민의 생활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시설의 모범답안과 같은 곳이다. ‘생활문화’란, 문화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질을 고취시키는 문화 활동을 의미한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문화의 증진’은 여가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어왔다. 금산문화의집은 2010년부터 줄곧 농촌 주민의 생활문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지난 2017년 연구진과의 첫 만남에서 ‘생활문화 기획자’로 자신들을 소개했고, 어떻게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디자인’ 해왔는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이들을,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찾아갔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온 이들의 지난 5년간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주민들이 구상하고 금산문화의집을 통해 구현하는 문화플랫폼을 지향하다



금산문화의집 박시영 센터장

2017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박시영 센터장은 여전히 금산문화의집의 리더로서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다. 그는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금산문화의집의 주요 활동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되면서, 소위 침체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기가 진정한 '생활문화'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민들 삶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5년 전에 금산문화의집에서 생활문화 기획자로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업을 끌어와 운영하다 보니 본연의 문화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행정 처리나 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주민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재밌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공모사업을 가져온 것인데, 오히려 사업 기준을 충족시키느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 것이다.

“사업을 열 개 끌어오면 잘하는 곳이고, 한 개 하면 못하는 곳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지, 진정으로 즐거운지,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박시영 센터장

‘생활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일상에서 문화 활동을 통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금산문화의집은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생활 문화의 의미와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금산문화의집을 금산 주민을 위한 ‘문화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금산문화의집이 독자적으로만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주민 누구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금산문화의집의 공간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플랫폼에 대한 계획이 2017년 당시에는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상하는 단계였다. 지금은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 문화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다. 그 실천 사례로는 금산문화의집 내 수다놀이터 설치, 틈새문화봉사단 활동, 주민극단 금산골의 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문화플랫폼의 중심축인 운영조직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금산문화의집에서 기획하고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주민들이 함께 주도하는 운영조직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민 중심의 운영조직, 문화플랫폼 구현의 중심축

2017년 인터뷰 당시에 금산문화의집 조직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문화리더 조직, 주민 10명의 대표가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 매달 토론을 진행하는 운영위원회, 각 동아리 대표가 매달 모여 행사를 기획하는 동아리 연합회 어깨동무 등 3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인터뷰에서 박시영 센터장은 문화의집의 방향성에 따라 조직 구성을 개편하면서 항상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5년이 흐른 현재, '문화플랫폼'의 역할을 지향하는 만큼, 조직의 형태도 그에 맞게 바뀌어 있었다.

2017년 당시 조직이 각자의 수행 역할에 따라 분류되었다면, 현재는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재편되었다. 문화의집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심의 지원센터, 일반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운영위원회, 공조직 출신이거나 지역활동가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이사회 등이다. 각각의 조직마다 10명~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3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운영조직만 가지고 있는 경우, 조직의 장의 결정에 따라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금산문화의집 안에서는 3개의 조직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포괄할 수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 실현시키는 문화플랫폼에 적합한 조직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개의 조직 사이에 일종의 경쟁심리도 생겨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금산문화의집 운영조직 회의

금산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활동은 3개 조직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일반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운영조직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례는 많이 있다. 그중에서 금산문화의집이 금산 주민을 위한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숲속 휴식 공간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수다놀이터'

금산문화의집이 남산 중턱 광장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건물의 뒤편이 모두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2018년에 몇몇 주민들이 금산문화의집 건물 1층에 있는 도서관과 연결된 뒤편 숲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보자는 의견을 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여 운영조직 임원진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를 통해 이 공간을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숲속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데 의견이 모여졌다. 운영조직 임원진들은 실행을 위해 힘을 보태었고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현장을 알려 도움을 구했다. 이렇게 솔선수범하여 힘을 보태고 각자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연대의 손길을 전해주니 큰 비용을 들지 않고도 점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간관계에서 6단계만 거치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처럼 금산문화의집에서 쓰아 올린 작은 공은 지역 사람들의 달란트 박물관으로 뒤뜰을 변화시켰다.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주민, 쇠파이프를 함께 자르고 난간대를 붙들어 매주는 주민, 자갈을 후원해주겠다는 주민 등 금산문화의집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있는 주민들이 뒤뜰의 땅 주인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 비용 등을 후원해주었다. 이렇게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공공의 환경을 가꾸는 기획자이자 봉사자로 나아가니 이내 소문이 퍼져 금산군의회 의원님들과 금산읍장님도 현장을 찾아보게 되었고, 주민 실천에 감동을 받아 행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작은 공연무대와 밝은 조명도 현장에 설치되었다. 쉼터 조성이 마무리되었을 때 주민들 누구나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쉼터 이름도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수다놀이터'라고 참여주민 한 분이 건의하여 명명되었다. 이렇게 뜻깊게 완성된 수다놀이터는 현재 지역주민들의 휴식터이자 영화동호회 등 각종 동호회의 숲속 공연장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의 생태놀이터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수다놀이터 조성은 주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주민들의 순수한 봉사와 후원으로 탄생한 주민자치의 현장이다. 이 과정에서 후원해준 주민들 스스로 큰 성취와 만족 속



에 행복감을 느꼈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또 다른 주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에 그 가치는 배가 되고 있다.



수다놀이터 조성

농촌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작은 나눔의 실천 '틈새 문화 봉사단'

2019년 3월에 금산문화의집에선 '틈새문화봉사단'이라는 단체가 탄생했다. 금산군의 면 지역에는 홀로 기거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전등을 갈거나 간단하게 집을 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거동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 또, 소소한 수선에 막상 수리업체를 부르자니 수선비보다 출장비가 더 크게 나오는 실정이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기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에 뜻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시간을 보태어 도와주면 좋겠다는 회원 한 분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일이 '틈새문화봉사단' 활동이다.

당시 운영조직의 논의를 통해 봉사단을 꾸려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운영조직의 임원들과 일반회원들이 합심하여 '틈새문화봉사단'이란 이름의 봉사단체가 결성되었다. 이후 봉사단의 활동이 거듭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봉사단 가입이 이어졌다. 면 지역의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봉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수요처를 파악했고, 한 달에 한 번 8~9명의 봉사단을 꾸려 독거노인 가구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하루에 여러 가구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실제 방문해보니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 정도가 심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고, 봉사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고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한 가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봉사단은 매달 한 가구씩 찾아가 집중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필요한 장비나 재료들은 전부 후원으로 준비하거나 봉사단이 직접 챙겨오기도 한다. 봉사 활동 참여자는 매번 조금씩 다른데, 봉사라는 자율성에 기반해서 움직이다 보니 일정별로 참여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 현재 지역주민 누구나 봉사단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으며 봉사단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찾아와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금산문화의집에선 주민들의 작은 의견이 주민 모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역 문화로 승화되어 이어지고 있다.



틈새 문화 봉사단 활동

농촌에 문화와 건강의 씨앗을 심어가는 '주민극단 금산골'

평균연령이 60세를 훌쩍 넘어섰다. 70대 중반을 지난 회원도 있다. 극단 금산골은 이렇게 나이 많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르신 연극단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젊고 활력이 넘쳐서 '주민극단 금산골'이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는다. 이렇게 '주민극단 금산골'은 금산의 특산품 인삼을 소재로 한 '인삼 행상을 떠난 우리 엄마'를 공연하며 고령 시대 건강지킴이 문화 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금산문화의집에는 총 36개의 동아리가 연대하여 ‘어깨동무’ 네트워크를 이루며 활동하고 있는데,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서 매년 개최되는 페스티벌이나 개별 행사 등을 통해 함께 연대하여 자신들의 재능 나눔 공연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와중에 각 팀별로 진행하던 공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 동아리 회원들이 좀 더 밀도감 있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의견 건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융합 공연이 시도되었다. 특히, 춤과 노래 등 다양한 장르가 접목될 수 있는 연극이 융합 장르의 대상으로 적합하여 민요, 댄스스포츠, 노래 등 각 회원이 갖고 있는 전공 분야들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리 회원 연합극단이 시도되었다.

회원들의 연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던 초창기에는 연극 지도 선생님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꾸준히 쌓아갔다. 특히, 2019년 10개 읍·면 순회공연을 거치면서 실력과 자신감이 일취월장으로 성장하였고, 회원들의 연극 활동이 깊이를 더해가면서 각 동아리의 색채가 튀는 연합팀이 아닌 자립적인 또 하나의 연극동아리로서 거듭났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활동이 잠시 위축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올해 다시 기지개를 켜고 28회 이상의 대외 공연을 소화하며 농촌지역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재능나눔 공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극단 금산골은 ‘인삼행상을 떠난 우리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이며 금산의 주력 농특산품인 인삼에 얽힌 향토 문화를 지역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고령사회로 들어선 농촌에서 문화예술 활동과 보급으로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두루 챙겨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금산문화의집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이를 실현시키는 문화플랫폼의 역할에 집중하려고 한다. 지금도 매년 10개 이상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거 많은 사업을 가져와 수행하던 때와 비교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줄었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금산문화의집의 내실은 더 견고히 다져지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노력을 담는 하나하나의 활동들이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으며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주민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며, 생활문화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주민극단 금산골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도약을 꿈꾸다

금산문화의집은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금산군이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¹에 선정되면서, 올해 126억 원을 들여 금산문화의집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의집 운영조직들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치맥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입체적인 마을지도 모형을 만들어 가운데 놓고, 조직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허심탄화하게 새로운 건물의 내부 구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이 건물이 어떻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지 논의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공간을 계기로 금산군 주민들이 금산문화의집과 함께 또 얼마나 다채롭게 따뜻한 이야기를 꽃피울지 궁금하다. 문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거라 기대한다.

1. 정부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 사업단이 추진하는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누구나 품격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산 생활문화커뮤니티 사업에는 총 126억 원이 투입되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어울림공간, 북카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을 만들고자 한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주민 주도형 웰니스 농촌체험관광, FUSO-맘 확 푸소!



-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 단체명 강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 주요내용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추진
- 키워드 FUSO, 농촌체험관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017년
우수사례

농촌관광의 새로운 실험, 강진 푸소 체험

- 강진군은 지역 인구의 고령화 및 과소화와 더불어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 동력이 약화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전문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등 지역 내 농어촌 관광 경영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류형 프로그램인 ‘푸소(FU-SO)’를 개발했다.
- ‘푸소(FU-SO)’란,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덜어내시오’라는 뜻의 전라도 방언이며, 시골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농촌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 학생 및 단체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푸소 체험 참여 농어가들은 특성 및 역량

에 따라 숙박, 체험, 식사 등 본인들이 가능한 영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

- 푸소 체험 모델은 개별 경영체가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선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의 소득 증대와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강진군 지역 여건

강진군은 전라남도 중남부에 위치하여 북쪽에서 동쪽과 서쪽으로는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과 경계를 이루는 고지대가 분포하고, 남쪽으로는 바다에 접한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북쪽의 월출산과 남쪽의 강진만으로 인해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5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35,420명까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3.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율이 전라남도의 22.1%에 비해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진군을 구성하는 1읍 10면 중 해안을 접한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대구면은 농촌과 어촌의 모습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나, 강진군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농가는 전체 가구의 40.2%(7,370가구), 어가는 2.9%(531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군 전체 인구의 약 40%가 강진읍에 거주할 정도로 지역 내 인구의 불균형 집중 분포 정도가 매우 높다.

강진군의 지역경제는 농림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강진군의 산업 분야별 지역경제 비중을 살펴보면, GRDP에서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총부가가치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2.1%였지만 2019년에는 14.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이상 2015년 기준가격). 이는 2005년 대비 2019년에 강진군에서 창출된 총부가가치가 32.4%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분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오히려 11.3%나 감소한 이유 때문이다.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강진군의



GRDP 증가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산업 활동이 주로 강진읍에 집중되고 있어 강진군 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를 지속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의 소득 창출 기능 역시 감소하고 있다.

체류형 농촌 관광의 새로운 모델 구축

강진군의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의 지속, 고령화의 심화, 농림어업의 축소 등으로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쇠퇴는 다시 인구 감소, 고령화, 농림어업 축소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농촌지역 저발전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농업·농촌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진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확대와 같은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과 경제활동 촉진, 새로운 인적 자원 양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강진군의 차별적 농촌발전 전략인 FUSO를 추진하게 되었다.

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말 전라도 사투리의 '덜어내다'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맘 확 푸소'처럼 쓰이는 '푸소'의 의미이다. 강진군은 2005년부터 웰니스(well-being + happiness)를 지향하는 농촌체험관광을 농촌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자체, 전문가, 지역 내 농어촌 관광 경영체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농가들이 숙박, 식사, 체험 등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농촌체험관광, 그것도 숙박을 통한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강진 농업기술센터에 녹색문화대학과 농촌관광 과정을 설립하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15년에는 본 과정의 수료자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FUSO에 참여할 체험농가 120곳을 선정하였다.

기존 농촌관광의 핵심 주체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숙박, 식사, 체험 프로그램을 마을 위원장이나 사무장 등 특정 개인이 모두 기획하고 운영·관리하는 특성을 지닌다. 물론 체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농가와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1

인 또는 소수 인원 중심 운영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강진 FUSO의 경우 농촌민박, 농촌관광, 농촌체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감성형 농촌생활관광' 모델을 창출하였다. 즉 민박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머물면서 농촌의 따뜻한 정서와 감성, 타인과의 소통, 농업의 가치, 지역의 문화와 자원 등을 느끼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힐링하는 '감성 여행'이 FUSO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다. 또 FUSO는 지자체 행정과 FUSO에 참여하는 농가들, 향교, 박물관, 지역 자원, 관련 사업체 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지역에 착근된(embedded) 네트워크 기반의 감성형 농촌생활관광 FUSO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진군 FUSO 체험 주요 내용

체험명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장소
영랑감성 아카데미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오페라 감상, 레크레이션, 연극, 청자접시에 꿈 새기기 등 진행	시문학파기념관 / 강진 아트홀 등
청자 체험	물레 체험, 코일링 체험, 모자이크 체험, 조각 체험 등	고려청자박물관
먹거리 체험	텃밭에서 직접 수확해 함께 만들어 먹는 시골밥상 체험	푸소 체험의 집
치즈 체험	치즈 공장을 둘러보며 치즈 가공 과정을 배우고 직접 치즈를 만들어보는 체험	동원 F&B 강진공장
향교 체험	향교에서 배우는 예절교육 및 다도 체험, 화장수 체험	강진 향교
농어촌 체험	밭길으로 꼬물꼬물 지나다니는 해양생물을 만나고, 논과 밭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체험	푸소 체험의 집
다도 체험	백련사 스님께 다도와 관련된 전통 예절을 배우는 체험	백련사
민화 체험	가장 한국적인 그림인 민화를 직접 그려보고 가방, 부채 등 생활소품들도 만들어보는 체험	한국민화뮤지엄
강진 짚트랙	가우도섬 정상에 세워진 청자타워에서 바다를 가르는 공중 하강 체험	가우도 청자타워
강진 해양레저	물살을 가르며 짜릿한 스릴을 느끼는 제트보트와 11km의 해안을 구경할 수 있는 요트 체험	가우도 저두 / 망호
농가 체험	메주 걸기, 감국 따기, 꽃감 만들기, 고추나무 제거, 녹차 씨앗 따기, 다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뜨개질, 설거지 돕기, 밥 까기, 배추 따기, 고구마 수확, 다도 체험, 낚시, 도리깨질, 바닷가 소풍, 서리태 담기, 생태공원 소풍 등	참여 농가

자료: 강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및 강진군 제공 자료.



방문객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간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른 지역의 농촌체험관광과는 달리, 강진의 FUSO 체험은 지역에 착근된 협력네트워크로 작동되는 특성으로 인해 강진군의 행정에서 방문객의 예약, 결제, 체험 농가 배정, 체험관광 일정 등을 직접 관리한다. 예를 들어 FUSO 단체 체험을 원하는 학교는 강진군청 관광과로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고, 학교 담당 교사가 강진군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며, 체험이 끝난 후 강진군청에서 해당 학교로 납부 고지서를 보낸다. 이를 통해 FUSO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농박)과 음식 제공, 농가 체험 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FUSO 체험 진행 과정

자료: 강진군청 FUSO 소개 자료(<https://www.gangjin.go.kr/fuso/intro/means>).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도전

강진군이 FUSO 체험을 추진한 2015년 이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까지 체험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첫해인 2015년에는 86개 농가(민박)가 FUSO 체험에 참여하여 1,931명의 체험 방문객을 수용했으며, 79,947천 원의 농가 수입도 발생하였다.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체험 방문객 수가 505.2% 증가한 11,686명, 농가 수입은 1,132.2% 증가한 985,131천 원에 이르렀다.

이렇듯 코로나19 이전까지, 강진 FUSO가 몇 년의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첫째, 일과 경제적 소득, 근면과 절약 등을 우월한 가치로 여기던 과거 수십 년간의 가치를 벗어나, 우리 사회가 이제는 개인 및 가족의 웰빙과 행복 추구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여행 활동이나 산업 분야로서의 관광 부문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구경이나 유람으로의 관광보다는 기억될 만한 경험, 자연 속에서의 힐링, 건강한 먹거리의 경험, 오감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 여행 등이 여행의 중요한 목적으로 자리 잡았다. 웰니스를 추구하는 강진의 FUSO는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 강진군이 관광 분야의 이러한 변화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FUSO를 전략적인 육성 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FUSO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때는 2015년부터이지만 강진군 차원에서는 이미 2006년부 녹색문화대학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FUSO 체험에 필요한 안전, 위생,接客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진지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준비 노력이 적지 않았다.

셋째, 농촌체험관광 참여 주체들 간 협력과 분업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했기에 강진군의 FUSO가 단기간 성장할 수 있었다.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FUSO 참여 농가 및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전문가들과 연계한 FUSO 서비스 및 상품 개발, 참여 농가들의 농박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군청 관광과의 예약 및 결재와 방문객 분배 등 각 주체들이 전문화된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기에 FUSO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푸소체험 추진 실적

(단위: 개, 명, 천 원)

연도	참여 농가 수	참여 인원			농가 수입
		계	학생	일반	
2015년	86	1,931	1,454	477	79,947
2016년	140	7,047	5,629	1,418	432,080
2017년	107	8,094	5,763	2,331	524,444
2018년	104	10,241	7,247	2,997	751,821
2019년	115	11,686	8,962	2,624	985,131
2020년	96	1,737	260	1,477	184,834
2021년	86	2,876	39	2,837	495,440

자료: 강진군청 제공.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부터는 체험 방문객 수와 농가 수입이 급격히 하락하여 전년 대비 10분의 1 정도에 그쳤다. 특히 학생 등의 단체 방문객이 급감하여 학생(단체) 대 일반(개인) 방문객 비율이 2015년 75.3% 대 24.7%였던 상황에서 2021년에는 1.4% 대 98.6%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물론 연간 일반(개인) 방문객 수는 2021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FUSO 체험 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학생 및 단체 방문객의 급감으로 강진 FUSO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그간 안정적인 성장을 몇 년간 거듭하였던 강진 FUSO의 취약점을 여과 없이 노출시켰다. 강진 FUSO의 한계는 첫째, 단체 관광객 중심의 매스 투어리즘(mass tourism)에서 마이크로 투어리즘(micro tourism)으로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미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기존의 FUSO 체험은 학교, 기관 등으로부터의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예약을 받아 진행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에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매스 투어리즘 방식에 집중했던 것과 연계된 것으로 방학이나 휴가철 외 비수기에는 농가에서 수익 발생이 어려웠기에 참여 농가의 이탈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개별 농가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대체로 그 내용이 단조로웠다. 대안으로 제시된 FUSO 프로그램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문화·예술 분야 기관들에 대부분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반면 농가에서 머물며 농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힐링하며 맘을 확 풀고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FUSO 체험 본연의 목적은 퇴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넷째, 일반 국민들이나 관광 소비자들에게 FUSO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았다. FUSO 체험 예약이 군청 관광과에서 전화로만 가능했다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 다섯째, 이미 지역 내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FUSO이지만 정착이 주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FUSO 산업의 거점이 부재하였다.



푸소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노력

최근 2~3년간 농촌체험관광을 포함한 관광 산업 전체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관광이 이동을 전제로 하기에, 대인 접촉을 삼가해야 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관광 수요가 급감하고 관광업계의 파산이 줄을 이었다. 특히 강진 FUSO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이 그간 학교, 기관 등에서의 단체관광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던 터라 코로나19는 강진군의 FUSO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렸다. 앞서 제시한 '푸소 체험 추진 실적' 표에는 이 사실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몇 가지 측면에서 강진군 FUS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첫째, 마이크로 투어리즘이라는 시장 변화를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코로나 직전 전체 방문객에서 75.3%에 이르렀던 8,962명의 단체 방문객 수가 2021년 연간 39명으로 거의 절멸하다시피 하면서 강진 FUSO 역시 마이크로 투어리즘으로의 시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수백 명 규모로 학생 및 공무원 단체 방문객만을 받아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래 표와 같이 FUSO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 1박 2일 시티 투어 푸소 등의 개별 방문객을 위한 체험관광 서비스 개발을 통해 마이크로 투어리즘 확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예약 및 결제 창구 역시 다양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는 학생, 공무원 등의 단체 방문객들 중심으로 FUSO 체험을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FUSO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새로운 체험관광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군청의 관광과에서 전화로만 이루어지던 예약 및 결제 과정도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될 수 있었다. 또 체험 방문객들이 후기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경제의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강진군 FUSO 운영 형태

	학생 푸소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	1박 2일 시티투어 푸소	공무원 푸소 청렴 교육
운영 관리	관광과	관광과	강진군문화 관광재단	강진군문화 관광재단	다산박물관
참여 농가	90농가	90농가	49농가	39농가	34농가
참여 대상	전국 도시권 초중고등학생	국내외 여행객	국내외 여행객	수도권/경기도 여행객	전국 공지가
체험 일정	1박 2일, 2박 3일	1박 2일, 2박 3일	6박 7일 또는 3박 4일+3박 4일	1박 2일 (평일/주말)	2박 3일
참가 비용	1인 58,000원 (1박 2일 기준)	1인 58,000원 (1박 2일 기준)	1인 33만 원 (6박 7일 기준)	1인 72,000원 (1박 2일 기준)	1인 30만 원
체험 인원	단체 200명 이내 (농가당 4-6명씩 배치)	2인 이상 신청 가능	2인 이상 신청 가능	2인 이상 신청 가능	기수별 40명

자료: 강진군 관광과 제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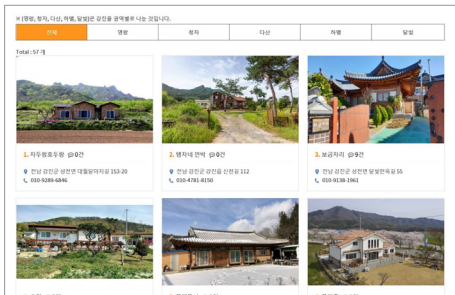
강진 푸소 인터넷 홍보 및 예약 결제 플랫폼



강진군청 홈페이지 내 푸소 홍보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홈페이지



개별 푸소 농가 소개



개별 푸소 농가 소개 및 체험 방문객 후기

셋째,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간의 FUSO 산업 육성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2019~2022년(4년) 기간 동안 ①(연계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웰니스 FUSO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②(상품 개발) 웰니스 FUSO 산업 콘텐츠 확보를 통한 사업 다각화 및 고도화, ③(농촌관광 명소화) 고품질의 서비스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주민의 조직화와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액션그룹 육성, FUSO 참여 농가 200호, FUSO 체험 연간 방문객 1십만 명, 창업자 85명, 피고용 일자리 71명, 체험 농가 연간 매출 1백억 원, 생산·가공 농가 연간 매출 30억 원, 판매 매출 연간 10억 원 등을 달성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강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계획 주요 내용

비전	웰니스 FUSO 산업으로 건강한 관광도시를 만든다.					
발전 목표	웰니스 FUSO 연계기반구축		웰니스 FUSO 상품개발		웰니스 FUSO 관광명소화	
전략	참여 주체별(액션그룹) 인재양성		콘텐츠 개발/보급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네트워크 체계 구축		상품의 신뢰도 향상		웰니스 FUSO 홍보 강화	
계획 과제	HW	웰니스 FUSO 센터	SW	웰니스 FUSO 상품개발	SW	웰니스 FUSO 서비스 기반 구축
	SW	웰니스 FUSO 아카데미	SW	지역 안심 인증제 강화		
	SW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SW	웰니스 FUSO 브랜드화 및 캐릭터 상품 개발	SW	스마트 FUSO 플랫폼
	SW	웰니스 FUSO 산업 ASPP 체계 구축				

자료: 강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앞으로 강진 농촌에 와서 맘 확 푸소!

강진군의 FUSO는 아직 전국적인 인지도나 유명세를 얻지는 못한 만큼 규모도 크게 형성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그 성장세가 돋보일 정도의 성과를 창출하였고, 타 지역의 농촌체험관광과는 차별적인 특성과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리고 이제 위기 이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강진군이 FUSO를 추진하며 이제껏 쏟아온 노력이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자세를 보건대, 앞으로 강진 FUSO가 '마음을 풀어놓는 시골체험 여행'으로 전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강진 농촌에 가서 마음을 확 풀고 가는 대한민국 대표 농촌체험관광'이 되길 기대해 본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로의 도약,

하례리 생태관광마을협의체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 393-1, 생태관광지원센터
- 단체명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 주요내용 천연기념물 효돈천을 테마로 한 생태관광을 시작으로 내창 트레킹, 숲 체험, 감귤점방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마을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도모
- 키워드 생태관광, 생태교육, 지속가능한 관광

2016년
우수사례

마을과 자연의 상생발전, 공동체가 모색하다: 서귀포시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 하례마을은 마을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개선, 생활방식 지속을 위해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 2014년 4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를 조직하였다.
- ‘효돈천 생명스토리텔링 찾기’로 명명한 자원조사를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일요일을 효돈천 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들과 하천 정화와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갔다. 더불어 제주도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이를 활용한 소득사업을 모색하는 등 마을의 생물종 다양성 복원과 마을 농업 개선을 꾀하였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하례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된 효돈천이 흐른다. 보석처럼 맑고 빛나는 효돈천과 빼어난 풍경으로 둘러싸인 하례리. 2014년 환경부는 하례리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국가 생태관광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버린 탓에 점점 마을 청년들이 도시로 이주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해갔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례리는 효돈천을 테마로 하는 생태관광을 기획했다. 자체적으로 결성한 생태관광마을협의체를 주축으로 마을 생태계와 자원을 지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례리 생태관광에는 마을 해설, 내창 트레킹,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방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하례리는 생태관광은 물론 하천 트레킹 최적지로 소문나며 점차 입지를 키워나가고 있다. 2016년 우리가 처음 하례리를 찾아간 이후 그곳은 어떤 단계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그 발자취를 자세히 알아보자.

제주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성장하다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의 발전 단계는 4단계로 나뉜다. 4단계는 각각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다. 2014년 마을협의체를 결성하고 2016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해 선보이기 시작한 단계는 2번째 단계인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마을 생태관광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 공모사업을 시작한 시기였다. 생태관광의 경우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4회 정도 시범 운영 형태로 이루어졌다. 홍보지를 발간해 주민들에게 마을협의체와 생태관광을 알리는, 다시 말해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진입 단계를 거쳐 2017년에는 마을사업부터 생태교육과 생태관광 프로그램까지 모두 성장하는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 5억 원 규모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에 필요한 전망대와 탐방로를 건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 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 분야에 참여해 제주도 1등, 전국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당시 마을협의체와 주민들은 처음으로 전국 단위 행사를 경험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큰 규모의 행사를 경험하며 더 성장한 계기였다고 주민들을 회고한다.



전망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또한, 하례리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교육 시범 운영 덕분에 2017년 하례 초등학교가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전까지 시범 운영이었던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마을협의체가 주관하게 되면서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고, 지역과 학교의 공동 교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 성과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7년은 하례리만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제주도 향토 음식인 상웨떡에 하례리 특산물인 감귤을 넣은 감귤점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하례리를 둘러싼 자연의 식생과 지질 등을 탐방하는 내창 트레킹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내창 트레킹은 효돈천에 들어가 물길을 따라 큰 바위를 오르내리며 제주 본연의 자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내창 트레킹은 고샅리 숲길 체험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해설을 들으며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지역주민들의 입을 통해 더욱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감굴점빵 체험



내창 트레킹

시간이 흘러 2019년 말에는 마을협의체 거점시설을 건설하고 다수의 공모사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육실과 체험장 등 여러 시설로 채워진 지상 3층 규모의 생태관광지원센터는 관광객 교육 및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노인회관 2층 증축, 주민 역량 강화, 경관 환경 개선 사업에 총 9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다. 특히 하례리 노인회관 2층에는 누구나 방문하여 차를 마시거나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창업 활동도 할 수 있는 창업보육 공간을 증축하고 있으며, 이곳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 조감도



위기 속에서도 하례리만의 내실을 다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에는 하례리를 찾는 외부인의 발길이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나 하례리 주민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생태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하례리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비록 마을을 찾는 발길이 줄어 관광 상품이나 축제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기 마을협의체는 좌절하지 않고 마을의 자체적인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했다.

가장 먼저 마을협의체 조직을 둘로 나눴다. 하나는 '마을 해설사 연합회(해설사 팀)'였고 다른 하나는 '모루와드르 생태환경 연구회(교육팀)'였다. 인력을 분할해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현재 두 팀에서는 각각 15명,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해설사팀은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마을 투어 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마을 해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내창 트레킹과 고살리 숲길 탐방, 감귤점방 체험 등은 관광객들에게 하례리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프로그램이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대규모 관광에서 소규모 관광으로 형태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18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하례리가 지정되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했다. 기존 하례리 특산품인 감귤 체험은 계절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22년에도 하례마을의 작은 골목길을 연결한 코스를 걷는 '고망길 투어' 등 새로운 투어 코스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교육팀의 이름인 '모루와드르'에서 '모루'는 제주어로 동산을, '드르'는 들판을 의미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교육팀의 목표는 제주 자연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는 두 가지 생태체험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탐사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에서 지속 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지정한 '생태탐험대' 프로그램이다. 생

태담협대는 남원읍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된다. 학생과 마을 주민이 한 달에 한 번 자연으로 나가 오감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학생이 표현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른 한 가지는 생태관광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다흔디 수색대’다. 다흔디 수색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태환경을 탐험하고 조사하며 이를 통해 보전상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알아보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태탐험대



다흔디수색대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도 교육팀이 담당한다. 이들은 2022년 현재까지 총 7기수의 마을 해설사를 양성했다. 한 기수당 총 10회에 걸쳐 하례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자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1기부터 6기까지 마을 해설사 교육을 수료한 선배 해설사들이 담당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은 내창 트레킹, 고살리 숲길 체험 등 하례리 생태관광 주민 해설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

이외에도 2021년부터 '내창소리'라는 이름의 체계화된 소식지를 만들어 마을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조합, 소방서, 학교 등 여러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영어로 작성된 내창 트레킹 체험 동역서나 외국어 자막이 담긴 홍보 영상물을 만드는 등 외국인 수요에도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



내창소리

Agreement																	
Please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before signing.																	
I Tourist Records 																	
Nam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Please indicate</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 heart disease or heart rate abnormalities</td> <td><input type="checkbox"/> Respiratory disease(asthma etc.)</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Pregnant</td> <td><input type="checkbox"/> Allergy</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Alcohol/drugs</td> <td><input type="checkbox"/> Diabetes</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High(low) blood pressure</td> <td><input type="checkbox"/> Serious phobia of flying, heights</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Allergy</td> <td><input type="checkbox"/> Panic disorder</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Epilepsy</td> <td><input type="checkbox"/> Musculoskeletal disorders (disc, arthritis or degenerative joint disease, fracture, sprain, ligament injury, etc.)</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Other diseases or contraindication for activities (Details:)</td> <td><input type="checkbox"/> N/A</td> </tr> </tbody> </table>	Please indicate		<input type="checkbox"/> heart disease or heart rate abnormalities	<input type="checkbox"/> Respiratory disease(asthma etc.)	<input type="checkbox"/> Pregnant	<input type="checkbox"/> Allergy	<input type="checkbox"/> Alcohol/drugs	<input type="checkbox"/> Diabetes	<input type="checkbox"/> High(low) blood pressure	<input type="checkbox"/> Serious phobia of flying, heights	<input type="checkbox"/> Allergy	<input type="checkbox"/> Panic disorder	<input type="checkbox"/> Epilepsy	<input type="checkbox"/> Musculoskeletal disorders (disc, arthritis or degenerative joint disease, fracture, sprain, ligament injury, etc.)	<input type="checkbox"/> Other diseases or contraindication for activities (Details:)	<input type="checkbox"/> N/A
Please indicate																	
<input type="checkbox"/> heart disease or heart rate abnormalities		<input type="checkbox"/> Respiratory disease(asthma etc.)															
<input type="checkbox"/> Pregnant		<input type="checkbox"/> Allergy															
<input type="checkbox"/> Alcohol/drugs	<input type="checkbox"/> Diabetes																
<input type="checkbox"/> High(low) blood pressure	<input type="checkbox"/> Serious phobia of flying, heights																
<input type="checkbox"/> Allergy	<input type="checkbox"/> Panic disorder																
<input type="checkbox"/> Epilepsy	<input type="checkbox"/> Musculoskeletal disorders (disc, arthritis or degenerative joint disease, fracture, sprain, ligament injury, etc.)																
<input type="checkbox"/> Other diseases or contraindication for activities (Details:)	<input type="checkbox"/> N/A																
Date of birth (M/J)																	
Phone No.																	
Address (No. 제외시킴/주민등록번호는제외)																	
I Agreement details 																	
1. I (in the case of a minor under the age of 19, a guardian, guide or legal representati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gner himself") have sufficient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for the experience, and agrees to the trekking experience accordingly.																	
2. I am fully aware of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juries and accidents that may occur due to four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I agree to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content as well as seeing to it before experiencing it.																	
3. I agree to faithfully follow the guide's instructions in order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advance, and agrees that all problems arising from ignoring this are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signer.																	
4. I agree that "Naechang Trekking" is not liable when health problems arise for the following reasons:																	
1) When a serious health condition occurs before, during, or after the tour due to a mental or physical abnormality that was not notified in advance																	
2) In case the guardian, guide, or legal representative does not accompany the tour despite being a minor under the age of 19																	
3) When an accident occurs due to arbitrarily adjusting, dismantling, damaging, or destroying equipment or tour facilities																	
4) In the case of leaving the course or team without permission or engaging in a dangerous act such as pushing others																	
5) In case of drinking alcohol or drugs before trekking during the trekking.																	
6) In all cases where an accident occurs due to negligence of the tourist even if ignoring the guidance.																	
5. I agree that "Naechang Trekking" can be rejected or stopped for health or safety reasons.																	
6. I agree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return the guide fee to "Naechang Trekking" if it is interrupted for reasons of the signer own.																	
<input type="checkbox"/> I agree to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s.																	
Signature and experience date : 2022.																	
내창 트레킹 Jeju (For minors under the age of 19, a guardian, guide, or legal representative must sign.)																	

내창 트레킹 체험 동역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로 나아가다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는 조직을 개편하며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면서 자립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협의체는 마을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으로써 그들만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곳의 마을협의체가 일반 행정 조직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례리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과 교육 등이 진행될 때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과 의견을 조정하고 주민들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협의체는 농촌 청년 인구 유출이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체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마을협의체가 조성 중인 노인회관 2층의 창업보육공간도 청년들이 농촌 마을로 이주하거나, 마을에 남기로 결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마을협의체는 기존 지역주민에 대한 존중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무리한 수익 창출을 위해 마을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관광객을 수용하는 수준을 지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고려하여 해설사 15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2번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는 하례리의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며 마을을 가꿔나가고 있다.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계속된다면 하례리는 자립 단계에서 더욱 발전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로서 영향력 있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E) 20-2022-1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집필 김광선 김경인 민경찬 김민석 나현수 손경민 유서영 유은영

문의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 061-820-2078

발행일 2022. 12.

디자인·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73-1775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ISBN 979-11-6149-498-2 93520

* 이 책에 수록한 글과 사진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